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2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아라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호국원광사 (02)796-0230
국방대학원법회 격주 수 낮12시
조달본부법회 격주 금 낮12시
불교진흥회후원회법회 매월 둘째 월 오후2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량사 (02)966-219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6시
일반법회 둘째,넷째일 오전10시

화계사 (02)902-2663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선우회 매주 토 오전9시
일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선 포교원 (02)923-05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6시30분

마산 한마음선원(0551)21-5454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화 저녁7시
정기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3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수 저녁7시
보살법회 매주 수·목 오후2시

인천 연화사 (032)873-074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7시
일반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 저녁9시30분

전북 실상사 (0671)34-30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저녁7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수능' 끝낸 고 3생

갈곳이 없다

주위 무관심 해방감서 탈선우려
사찰개방, 강좌 · 상담으로 지도를

9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을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년 입시는 1백27개 전기대학 가운데 38개 대학만이 본고사를 실시해 수험생의 반수이상이 무작정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일선고교는 본고사를 포기한 학생들을 위해 예절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탈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를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종교계 및 사회와 청소년단체가 수험생에 대한 지도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계는 그동안 수험생에 대한 지도는 물론 포교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청소년지도법사들의 견해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시험전까지 진행하던 입시기도를 회향하고 더이상의 수험생에 대한 관심이 중단된 상태. 불교학생회를 운영하는 사찰에서도 입시전날 봉행하는 합격기원법회 이외에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합격기원법회도 대부분 학생회의 동문과 후배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성여고 김형중 교법사는 "수능시험을 치룬 수험생은 사회와 대학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의 젊은이 들이다"며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 부족은 사회적 책임은 물론 미래불교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법사들은 수험생에 대한 포교가 황무지임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청소년 불교회관건립 △전국의 사찰 청소년에게 무료개방 △사찰 참배등의 문화교실 개설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양강좌 개설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양강좌, 봉사활동, 고적답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했다. 따라서 지역 사찰마다 일주문을 개방하고 경내에 문화교실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한다면 수험생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엽 기자〉

국립공원 입장권 비리 의혹
내무부 조사, 전국 7개소 적발

선운사도립공원을 비롯 속리산 국립공원등 전국의 유명 국·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입장료 부정징수가 드러나거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초 내무부가 국·도립공원 7곳을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들이 해당 시·군의 검인없는 입장권을 팔거나, 회수된 입장권을 되파는 등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부정의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입장료와 관련해 비리가 속출한다는 심증을 그동안 가져왔다"며 "5~6년전 조계종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국·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부정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지난 11월 17일 관람료 징수 사찰주지회의에서 관람권을 총무원에서 인쇄해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없는 개혁을 · · · 조계종 신임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 환담했다. 이날 김대통령은 월주스님의 당선에 축하의 뜻을 밝히고 종단의 대화합과 중단없는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속의 불교가 되도록 종단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예산 대폭늘려
교육 · 포교사업 집중편성
작년 대비 83%

조계종 새해 예산이 6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8일 속개된 조계종 제114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심의 확정된 이번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83%가 증액된 것이다.

이번 예산은 조계종의 기구확장에 따라 대폭 늘어났으며 교육 포교 복지 문화 사업 등 종단 목적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문화재 관람료 분담금 18억원 △일반분담금 10억1천만원 특별분담금 15억8천만원 직영사찰분담금 11억5천만원 등 분담금이 총 37억4천만원으로 특별분담금과 직영사찰분담금이 신설돼 재정 충당의 주요근간을 이루고 있다.

세출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독립 편성 △총무원 33억2천9백6십6만1천5백원 △교육원 21억2천4백2십9만6천원 △포교원 11억4천6백4만2천5백원 등이다.

4년제 정규대 숙원 풀렸다

교육부, 중앙승가대 위치변경 계획 승인

김포 금정사 부지로 96년 2월까지 이전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이 정규 4년제 대학 승격의 숙원을 풀게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중앙승가대의 김포군 금정사 부지로의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승가대의 정규대 승격을 위한 선결 조건이었던 학사 이전이 오는 96년 2월말까지 완료되면 승가대는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인받게 된다.

금정사 주지 명훈스님이 기증한 금정사 부지—김포군 김포을 풍무리 산 159-1는 총 5만4천여평으로 승가대는 이곳에 강의실 법당 기숙사 도서관 실내 체육관 교수연구동 등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거한 설비를 96년 2월까지 확보해야 한다.

승가대는 교육부 허가가 남에 따라 이달부터 1만5천여평에 이르는 학사 건립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학사 완공시까지의 총 예상 공사비는 2백78억원으로 승가대는 종단 지원과 법불교적 모금운동 등을 통해 기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중앙승가대는 교육부의 위치변경 계획 승인과 관련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 일정을 설명하고 범종단적 관심과 전 불자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승려교육기관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어

그렇게 썩었습니까

"그렇게 썩었습니까."

세금도둑들이 부천뿐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서 우글거리고 있음을 보도한 어느 TV뉴스에서 앵커가 던진 첫 말이다. 이날 뉴스는 세금도둑을 비롯하여 보석 밀수사건, 전세방 얻기위해 시작한 아주 나이 어린 부부의 맞벌이 강도, 철도 공무원들의 억대 상습 도박단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을까. 이 나라의 종합뉴스 시간이 이처럼 냄새나는 부패한 소식으로 장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어디 이날 뿐인가. 연일 이어지는 이런 썩은 뉴스에 국민은 이제 중독된 상태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뉴스 뒷부분을 장식한 효자효부대상 잔치같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 듣는 소식이지만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학교 장학금으로 희사한 보살 할머니가 있고, 장기를 나눠주는 보살들이 있어서 우리사회는 그나마 지탱해 나가나 보다.

이제는 말이 소용없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우리 모두 작은 행이라도 실천이 있어야 썩은 사회를 화생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과세방법이 공평함으로써 수탈의 공포를 없애야한다. 관료들이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대함으로써 부패 관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백성들이 모두 도리를 지키고 결손하며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도둑들이 날뛰는 공포를 없애야한다."

세도들이 들끓는 오늘 우리는 다함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청렴공직자의 상과 시민정신을 되새기면서 자성의 옷깃을 여며야겠다.

법정스님 '나눔의 기쁨' 부산 설법 지상중계 11면

본지는 불기 2539년(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시어 한 해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 상: 종단 및 사암 연합회, 사찰(포교원), 각종단체
내 용: 신년 축하광고에 준한 내용
금 액: 5만원,10만원, 20만원,30만원
연락처: TEL 737-8881 FAX 737-0697

세계속의 한국인, 세계속의 한보인

"만리풍파에 시달리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도 많았고 시장도 할터이니
약소하나마 거세한 황소 세마리와 닭 오십수,
그리고 달걀 일만개를 보내노라."

■1871년 신미양요 때의 일. 미국함대가 조선정부에 최후통첩을 전해오자 강화유수를 통해 '아국은 각동에 자리잡고 귀국은 약서에 자리잡아 수만리를 격하고 있는데 그 한 해양을 건너와 교통하는 지의는 찬기한 라며 강경한 일전태세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어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선전포고 끝에 식량을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일지언정 먼길을 온 손에게 굶하여 할 예우를 잊지 않고, 당당하고 호기로운 기상으로 지켜야 할 도리에 충실했던 한국인의 예의 참신,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얼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전포고장"

21세기 신화를 창조하는 한보의 미래도전장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물러남이 없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선 사고, 남다른 도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 한가지 더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이게 하는 정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자, 正道를 걷고자 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정신 —,
바로 한보가 지향하는 新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진취적인 사고와 패기, 도전정신으로 민족의 자랑스런 일을 오늘에 되살려, 당당히 세계 초일류의 대열에 우뚝 서는 일, 21세기 신화를 창조하는 한보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도전하는 한보, 한보인

철 강 한보철강의 뜨거운 불꽃이에 내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건 설 효율적인 국토 개발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신화가 한보에서 시작됩니다.
에너지 지하의 박장, 열사의 사막에서 에너지 대국의 꿈을 착실히 실현해 갑니다.
제 약 질병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보는 신약 연구개발에 힘써가겠습니다.
정 보 컴퓨터와를 구현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시스템이 미래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교 육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한보는 영동전문대학을 통해 사회의 등불이 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보그룹

열린마당

세 금 도 둑

사 설

공직사회 낡은 제도 · 의식 타파하라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세금비리 사건으로 어수선하다. 부천시에서 나타난 세도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우발적으로 세금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정사건이다. 또 인천시에서와 달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도청의 감사기관까지 이에 연루되어 있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사건이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복색원 하겠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사정작업의 한파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경색시킨다는 강한 우려를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구조는 이를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게 되어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감사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등 충격 조치로 일부분의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정과 금융실명제를 하면 큰 혼란이 온다고 하던 경제활동은 최근 7년간 가장 활발한 호환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의 복지부동 역시 개혁작업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공직사회의 제도적 낙후성과 일부 공직자의 철학 빈곤으로 생긴 과도기적 문제로 이해한다면, 경제를 위해서도 개혁작업은 필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정상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의 세도사건을 통하여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면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란 무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르게 되는 것을 결정하여 주며, 의식이란 비록 틀린 제도 속이라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제도 속에서도 틀리게 행동하게 하는 역할을 유도한다.

우리사회의 의식과 관행에는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첫째로, 우리 사회의 의식과 많은 부분에서 공사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괜찮은 자리라고 말하는 업무는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자리이다. 국민의 세금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속에 들어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였다는 사실과 감사를 맡은 상급기관에서 상납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은 다같이 국가를 지키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직을 택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 사회의 잘못을 보더라도 이를 못본척 하며 고발을 하기보다는 자기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한조직을 관리하면서도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사람 좋은 상급자가 되고 싶어 한다.

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뒷받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른 불교인이 갖추어야할 주요한 요소는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불자들의 목소리

무책임한 공직자 거부를

◇**성열스님** (강남포교원장)=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청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몽땅 들어먹고 가짜 영수증을 붙이는 세금도둑으로 전락했다니 국가의 기강이 의심스럽다. 부처님은 〈세기경〉에서 "지도자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국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백성들은 무책임한 지도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도둑은 곧 사회를 훔치는 도둑이다. 이러한 도둑이 성행할 때는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은 국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시금 새기고 자기 반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불안한 국민을 외면 말라

◇**육문스님** (비구니 종회의원)='국민의 공복'이요, 사회양심의 대변자가 되야 할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착복하고 더구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더욱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비리와 부실로 점점 그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비리의 근원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않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탐 진 치가 꽉 차 있다. 자기의 분수와 몫을 알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갈 때만이 이러한 사회부조리는 있을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 진실로 필요한 시기이다.



◇성열스님



◇이정웅씨



◇육문스님



◇이금현씨

공개수사로 비리 근절해야

◇**이정웅**(시인)=세금도둑이란 말이 우리 사회의 유행어가 되고 있다. 도둑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다양성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도둑의 진원지이다.

공무원이 도둑이라니. 한 나라의 행정을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처리해 나가는 공무원이 도둑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세금도둑질이 어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겠는가. 군사정권시절에도 공공연히 거론되던 공무원 비리.

이제 공무원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가 됐다. 아니 이미 늦은 시간이다. 하루 속히 뽑혀야 할 비리의 뿌리가 이번 세무공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확실히 뽑혀야 한다. 보다 강도 높은 감사와 공개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빨리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개인적 탐욕을 앞세우는 태도. 공권이 필요이상으로 나약한 국민정서 모두가 만들어 낸 도둑이 바로 세금도둑인 것이다.

시민들이 척결하자

◇**이금현**(경불련여성위원장)=국민감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내무부장관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사과의 말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가행정을 유지하는 공무원들이, 그것도 당사자만이 아닌 부패의 사슬로 엮여있다니 이 나라가 혹시 무정부상태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인천북구청의 비리도 내부고발에 의해 밝혀졌듯이 세무비리 척결에 양심적인 공무원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차제에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무사 사무실이나 시·군·구청에 세금을 낸 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도둑맞지 않았는지 담당관청에 찾아가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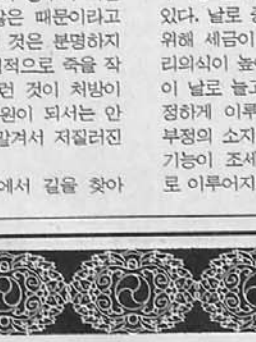
현대만평 박구원



보기 싫다

시 론

심각한 돈 중독증



신 철 균
〈옥스퍼드대학 객원교수〉

부처님의 말씀 중에 중생은 사바세계에서 물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원정신을 근검 절약 봉사 희생의 정신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는 60~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나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잃어 오늘날 자본주의는 막스베버의 말과는 달리 「저질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화」 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사회에 몇가지 중독증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돈의 중독증·물질의 중독증, 둘째는 이기주의 중독증, 셋째는 SEX의 중독증등이다.

특히 이중 돈의 중독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북구청 도세 사건 이후 정부가 더 이상의 세무부정은 없다고 확언하였지만 부천 원미구청에서 똑 같은 수법의 세금도둑 사건이 들어남에 따라 전 지방특감에 들어갔는 데 전국 곳곳에서 세도(稅盜) 사건이 들어나고 있어, 전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세도범이 기능직들 이라는 데서 심각한 인사대책과 교육수련을 요하게 되는 문제다. 세무업무를 출세의식이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는 기능직에게 맡긴 것부터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제대로 공무원 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갖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승진하여 윗자리에 오르겠다는 희망에서다.

공무원이 되선 안될 사람

그러나 그런 희망이 없다면 남는 것은 축재하여 잘 살아 보겠다는 물부적 욕망 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돈의 유혹을 받게 되고 틈만 있으면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감독의 자리에 있는 윗 사람이 관리에 헛점을 보여 빈틈을 주면 도둑질 할 수 밖에 없다. 기실 지방세의 징수업무는 국세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두번씩만 챙겨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것도 한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부서가 몽땅 짜고 조직적으로 죽을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인 데 그런 것이 처방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되서는 안될 사람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겨서 저질러진 것이다.

공무원의 자질과 직업의식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현재 지방세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세정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줄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만 세무직에 근무하게 되어 비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감시기능 강화하자

따라서 내무부 산하에 국세청과 같은 독립적인 지방세무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지방세정의 문제점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일선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거나 분리되더라도 납세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무사를 통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에서와 같은 영수증 조작에 의한 횡령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다. 국세처럼 부과는 지방 세무부서에서 하되 징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모든 공과금의 수납비리 예방을 위하여 세금의 수납은 은행납부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세금의 납부는 항상 현금 납부를 의미하므로 세무서 등 세입징수기관에서 현금 취급에 따른 위험을 본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세번째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내부견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견제기능이 1개 과에서 보다 서로 다른 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과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대장을 정리하는 사람이 동일할 경우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넷째 주기적으로 사후에 상호대조 확인업무를 통하여 2중의 방지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세금부과나 징수에 관련된 장부와 영수증을 서로 확인하고 또한 세무서 장부상의 집계액과 은행수납 합계액을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단 1원의 차이도 규명하는 대조검사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정의 문제점은 전산화 미비이다. 전산실은 1988년에 발족되었는 데 국세업무 전산화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전산화는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세금산정 때 인위적인 조작을 방지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세정은 징수업무에만 주력할 뿐 규제 또는 심사기능을 등한시 하고 있다. 날로 증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맞추기 위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이 날로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또한 부정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세의 심판기능이 조세심판소의 신설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봉 축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종사
취임 법회

그 동안 조계종의 개혁 불사에 격려와 성원을 보여 주신 전 종도 및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대화합 속에 개혁정신을 견지하여 국민 앞에 회향하는 자세로 원융 화합종단을 만드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이제 그 첫발을 내딛는 제 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종사의 취임법회와 축하 다과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전 종도와 사부대중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법회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취임 법회
· 일 시 : 12월 9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축하 다과회
· 일 시 : 12월 9일 오후 6시
· 장 소 : 타워 호텔 1층 젤코바 홀

불기 2538년 12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방지하 합장

신행수첩

'국가재난소멸 천혼국재' 오는 8일 한강시민공원서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붕괴사건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일깨워 준 값비싼 교훈이었다.

온국민이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시금 점검하고 공동체 사회속의 난제들을 함께 해결하자는 큰 원력으로 진행되는 '국가재난소멸 및 희생자 천혼국재'가 오는 8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열린다.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의 주최로 열리게 되는 이번 국재는 성수대교붕괴등 잇따른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을 위로 천도하고, 우리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법회의 자리다.

이날 국재에는 태고종 종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 신도, 희생자 유가족등 1만여명이 참석해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적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

(02)745-1614

백제불교를 찾아서 간월암, 개심사등 참배

시적인 영감이 한없이 떠오를 것 같은 계절에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에서는 11일 마음을 살찌울 불교문화지를 답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차령산맥이 서해에 접하며 그 맥이 다하는 지점 가야산 일대를 답사하게 될 기행팀은 백제불교를 꽃피웠던 곳을 돌아본다.

서산군 운산면에서 남으로 6㎞쯤 들어간 골짜기에 국보 제84호로 지정된 마애삼존불이 있고 여기서 1.3㎞ 넓은 사지에 갖진 지정문화재를 다섯이나 보존하고 있는 보원사지가 있다. 답사팀은 이곳을 방문 백제불교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 또 개심사, 간월암에서의 역사적 회고와 서해안에서의 일몰의 광경까지 초겨울의 운치를 한껏 만끽하게 될 것이다. (02)712-5812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자 영화사서 불교개혁모색

"불교의 미래는 우리의 어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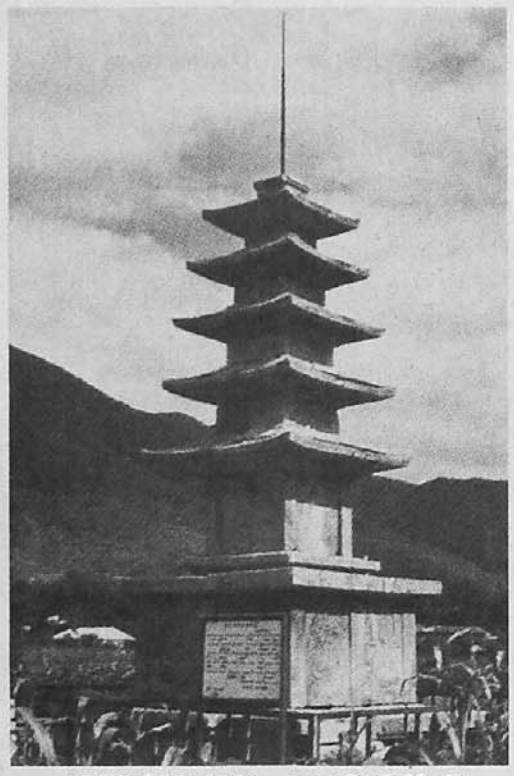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이사 지선스님)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1박2일간 구의동 영화사에서 '불교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교육마당'을 펼친다.

사부대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마당은 계속되는 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불교'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띤 목소리를 담는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공동체 놀이와 울력을 통해 서로의 교류와 교감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개혁과 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에는 짧은 시간, 그러나 열린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참가 불자들의 뜨거운 신심은 초겨울의 쌀쌀함을 녹이게 될 것이다. (02)747-1901



◇탑위로 찰간이 솟아있는 서산 보원사지 5층석탑

자연보호는 곧 생명보호 부산불교 산악회 창립

문수보살은 "자비로 군생(群生)을 구호하는 가르침이 불교이며, 남을 해치는 마음없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불교"라고 했다.

이는 자연과 뭇 생명을 자비로 애호하는 그 자체가 불교라는 의미이다.

이런 가르침대로 '사람의 아름답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돈독한 신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세상은 우리모두가 바라는 불국정토가 아닐까?

사회봉사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는 반야라이온스회(회장 강학일)는 저물어가는 94년을 불자장애인들과의 따뜻한 만남으로 마무리 짓는다.

장애인과 송년법회를 18일 반야라이온스회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돈독한 신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세상은 우리모두가 바라는 불국정토가 아닐까?

사회봉사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이웃과 함께 하는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는 반야라이온스회(회장 강학일)는 저물어가는 94년을 불자장애인들과의 따뜻한 만남으로 마무리 짓는다.

반야라이온스회는 오는 18일 가락동 광립사 포교원에서 연화청각장애자회와 합동으로 송년법회를 갖고, 작은 정성을 담은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02)732-0614

차 문화 다시 볼 기회 3일부터 초의선원서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그윽한 차향기와 함께 정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인사동 초의선원에 마련됐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열리는 차생활문화자료전은 차맛을 즐기며 다구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거기다「한국」전통행다법의 역사와 이른,「한·중·일 차문화 비교론」을 주제로한 용운스님(월간 다담 발행인)의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이 강연은 4일과 8일 오후2시에 열린다. 또 3일 오후3시에는 차그릇 만들기 도예시범이 있으며 행사기간 내내 차그릇 글씨 그림 그리기 시범도 계속된다. 수시로 차문화 관련 비디오도 상영되며 6일(오후7시) 7일(오후2시) 9 일(오후6시)에도 용운스님의 강연이 열린다.

이동신 법사 추모비 제막 10주년 맞아 도솔사서

불교인은 모두가 깨치기 위해 수행중에 있으며 우리들의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속에서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는 6일 강원도 양구군 죽곡리 군법당 도솔사(주지 신원길)는 고 이동신 법사 추모비 제막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꽃다운 나이에 군인신분(당시 중위)으로 포교에 정열을 사르다 산화해 간 고 이동신 법사 추모 10주년을 맞아 인근 사찰스님들과 주민·군불자등의 참여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0345)481-5806

"신라예술과 만난다" 터사랑, 10일부터 양일간

잊혀져 가는 문화와 역사를 현장체험을 통해 알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국토순례 모임 '터사랑'에서는 잊혀져가는 소중한 불교문화를 찾아서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옛 신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일대로 국토순례를 나선다.

토함산을 등에 지고 광활한 동해로 향해 있는 석굴암을 들러 신라불교문화의 가장 뛰어난 예술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회원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할 것이다.

또한 조상들의 슬기와 살아있는 곳곳을 찾아 순례를 다녀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02)725-1284

구산스님 상당 법어집 출간

15일, 송광사서 11주기 추모법회



◇구산 스님

한국불교를 해외에까지 널리 전한 이를 꼽으라면 단연 구산선사(1909~1983)이다. 1973년 송광사에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한 것을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려사, 스위스 제네바의 불승사, 미국 카멜의 대각사를 개설하는 등 해외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구산스님의 입적 11주기를 맞아 오는 15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구산선사는 1969년 송광사에 조계총림을 개원하여 승보종찰로써의 사격을 다졌으며, 송광사의 부속건물들을 중창해서 오늘날의 대가람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문도들이 중심이 된 구산선사문집간행위원회는 구산스님 추모일에 맞춰 상당법어집을 출간, 스님의 영전에 헌정할 예정이다. 문집은 1권 상당법어집을 비롯 구산스님의 법어 및 서간 사진등의 자료를 모아 계속해서 펴낼 예정이다.

나의 수행일기



김 종 규
<삼성출판사 회장>

나는 불법의 맥이 유달리 깊고 두터운 남도의 정서속에 자랐다. 남 못지 않게 깊은 신심을 지니고 계신 어머님 덕분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할 불도의 끈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반항적이며 염세적이었던 청소년시절 무상(無常)이라는 불교의 사상은 나의 마음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연으로, 사회에 나와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출판문화업에 종사하면서 바로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문화계, 학계, 언론계등 깊은 신심을 지니고 10년이 넘게 삶을 만끽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많이 만났다. 청남 오제봉, 향파 이주홍, 요산 김정한 선생을 비롯한 선배들과 동석하면서 효당(최범술)스님이 계시는 다솔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많은 가르침과 나이를 떠난 교류를 갖는 행복을 누리기도했다.

특히 청남, 효당스님과의 만남으로 나는 다도를 익히게 됐고 1974년에는 서울에서 효당스님을 모시고 중천 김충렬박사와 김상현교수 그리고 권오근 박사와 함께 차선회(茶禪會)란 다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달 행하는 박물관 답사를 통해 우리 산하의 불교문화재를, 민학회를 통해서는 우리민족의 심층문화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속에서 더욱 깊은 불법의 세계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불교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선지식에 늘 감사…보은회 결성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다운 불교를 이해하고 또 오늘까지 신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동국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였다. 불교종립대학이라는 불교적 분위기속에 매주 월요일 열렸던 백성욱 총장의 깊고도 간결한 불교사상 강의는 나를 비롯한 전교생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었던 학교의 분위기는 모두가 불교를 바탕으로한 동국대만이 가질수 있었던 긍지이자 자랑이었다.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아는 양주동, 서정주, 조명기 교수와 탄허스님을 비롯한 석학, 고승들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만날수 있었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스님학생과 동대문 야전복에 군화를 신은 학생들이 함께 삶과 사상과 학문을 논하며 자연스레 불법을 훈습하는 젊은날의 도장이었다.

고향후배이자 방송작가로 활동중인 윤청광과의 사귐도 동국대학교에서의 소중한 인연이다.

배우고 신심을 다지기위해 '보은회'라는 부부불자모임을 만들어 향봉스님과 총범스님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매달 사찰과 가정을 오가며 정진해 온것이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여기에 과분하게도 경찰청 경승단 중앙후원회의 회장까지 맡게되어 부족하나마 외부활동도 해오고 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머리맡에서 늘 잔잔한 미소를 띄고 있는 고불(古佛)에 헌향, 헌다를 하고 불경을 듣는다.

이제 나보다 더 돈독한 불심으로 생활하는 안사람과 녹차를 마시고, 오늘도 여기저기 친분이 있는 여러사람과 사업관계로 인사를 나누며 다담불담(茶談佛談)으로 하루를 여는것이 나의 현재 삶이요, 신행의 길이다.

선가귀감의 머리쪽에 나오는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心如鏡之體, 性如鏡之光)"는 경구(警句)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생활 속의 불교 ⑧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
새라 해서 나는 새가 아니고, 쥐라 해서 천장 속의 쥐가 아니다.
불법에 따르면 삼천대천세계에, 이 우주에는 진리의 그물이 쳐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다 포착되고 기록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나만 아는 일, 너와 나밖에 모르는 일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바로 내가 아는 일은 우주 전체가 알고 부처가 알고 내 근본이 안다는 뜻이다.

마치 거대한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되는 것,
거대한 녹음기에 일일이 녹음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라 하고, 그 업은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따라
언제 어느 때고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고 한다.
말하자면 지은 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듯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며
지은 것은 채곡채곡 쌓여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툭 튀어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지은 것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법에는 그 업이 녹는 도리도 있다.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견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이글스 카독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57 - 7
전화:0336-643-1472
642-8572
팩스:0336-642-5858



경전 노래음반 취입하는 지범 스님

어떤 중생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 칠보를 가득쌓고/ 보시를 한다해도/ 금강경의 참된 뜻을/ 남에게 일러주는/ 보시만 못하고/ 복과 덕도 나으리라 -금강경 중에서

독경스님으로 음성포교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지범스님(제주 극락사 주지)이 경전을 이용한 기초교리 법문용 노래음반을 취입한다.

지범스님은 그동안 독송과 게송의 염불조 음성포교 스님만으로 알

기초교리 법문용 노래 본격 가수 활동나서

려져 있다. 그러나 독경나레이션 노래 3박자를 모두 맞춰야하는 이번 5집앨범으로 스님은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하게 된다.

지범스님은 "스님이라고 하면 세상과 격리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음반과 거리공연을 통한 포교로 불자들과 더불어 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다.

포교전문시대를 주장하는 지범스님은 굿거리장단에 왈츠형식을 띤 리듬의 이번 5집앨범에 독특하고 호소력있는 음색으로 경전말씀을 모두 담아낼 계획이다. 5집앨범은 내년 3월경에 전국에 선보이게 된다.

구미 초청법회 참석



암도스님(전 포교원장)은 지난 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대중불교문화원(원장 남의해) 주최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을 설했다.

btn과 교류협의



도안스님(LA 관음사 주지)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WFB대회에 참석하고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 이 기간중 스님은 미국지역 불교방송



◇ 법륜종은 증정스님및 총무원장스님등 종단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창종 6주년 및 청사이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륜종 창종 6주 및 청사이전 기념법회 성료

한국불교 법륜종(총무원장 ,석일화)은 지난달 30일, 창종 6주년 기념 및 총무원 청사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석금암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일화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심지인 수송동에 새 총무원 청사를 마련함을 계기로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올바른 승가상을 정립하기 위해 종도 모두 용맹정진하자"고 밝혔다.

종정 석금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도들이 성실히 수행정진한다면 법륜종 종세는 날로 발전할 것이며, 모든 종도가 원만한 공덕을 이루어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무원장 일화스님은 창법스님(지장암 주지) 일정스님(성수암 주지) 해암스님(법륜사 주지)등 청사 이전에 공이 큰 종단스님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교차로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고 불교텔리비젼과 미주 불교방송이 긴밀한 교류를 가질 것을 협의했다.

인도 · 네팔성지순례



호진스님(동국대교수)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교수 신도 16명과 함께 인도 네팔 등 성지순례길에 나선다.

서울시민 6백인에 선정



화담스님(자비원 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제정 '자랑스런 서울시민 6백인'으로 선정됐다. 스님은 15년전부터 자비장학회를 운영 2백50여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 이날 봉사인으로 선정됐다.

불교 열린음악회 열어



범진스님(대한불교 예술포교원장)은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남천동 KBS홀에서 30여 음성포교 스님들이 출연하는 불우학생돕기 '불교 열린음악회'를 주최했다.

미얀마 불교유적답사



정재각박사(전 동국대총장)는 미얀마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7일 출국 했다.

원화 · 화랑모임축제 참가

조영장의원(민자당 · 인천 서구)은 지난달 26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한불교교화연합회주최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봉일 대축제에 참석,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반야의식집'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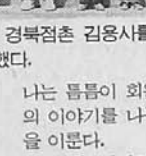


강학일씨(반야라이온스회장)는 최근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필요한 의식문들을 담은 '반야의식집'을 발간 배포했다.

수산대 동창회 참석

허재홍의원(민자당 · 부산 남갑)은 수산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지난 1, 2일 이틀간 백암온천에서 열린 수산대 경북지부 총동창회에 참석했다.

방위산업체 불자회 정총



이양길씨(불교방위산업체불자회 회장)는 지난 28일 엠버스터호텔에서 열린 불교방위산업체불자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수필집 '난창 ~' 출간



김화수씨(서화가)가 수필집 〈난창을 열어놓고 석실에 앉아서〉를 출간했다. 김화수씨는 수필집에서 난에 대한 예찬과 스님들과의 인연 등을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다.

군포교대상 수상

정국생법사(해군 교육사령부)는 30일 군승의 날에 대한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제2회 군포교대상을 수상했다.

게시판

▲인도탐방 여행설명회=해초여행사(대표 심상돈)는 인도 여행설명회를 10일 오후 3시30분 한국 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에서 갖는다. 이날 인도 · 네팔여행에 관한 내용과 주요 여행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상영한다. 02)544-1533

▲한국불교학 전문강좌개설=(사)가산불교문학연구원(원장 이지관)은 한문불전강좌와 함께 범어, 팔리어, 티벳어 등의 불교원전 연구과정을 추가로 개설, 수강자를 모집한다. 02)765-9602~3

▲신입생모집=금강불교대학이 19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 천태학과 30명, 불교학과 1백20명, 부산캠퍼스 불교학과 1백20명이다. 02)464-3306 051)803-0703

결혼 ▲최연씨(재가불자연합)=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예향(옛 삼청각)에서 유상숙양을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내일을 여는 불자

김 응 철 <중앙승가대 전산원장>

"종무행정 컴퓨터 활용 절실"

어록 색인집 · 한글경전 검색 프로그램 개발



중앙승가대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전산원장 겸 불교복지학과 김응철교수를 빼놓을 수 없다. 복지행정과 컴퓨터개론 강의는 물론 전산원의 컴퓨터교육으로 일주일내내 그의 시간표는 강의로 빽빽하다.

그는 불교복지학과에서 복지행정을 강의하는 교수로 알려져 있기보다는 컴퓨터박사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2시간씩의 전산원 강의와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개론 강의가 모두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내년 2월 출판 예정인 태고 · 보조어록 일자색인집 발간에도 몰두하고 있다.

일자색인은, 가령 '공(空)'이라는 글자가 어느 저작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16종이 개발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개발을 안하고 있을 뿐이라는 김교수의 설명이다.

'불교와 컴퓨터'는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이미 인공지능, 자기보존 기능을 갖춘 단계로까지 컴퓨터 기술은 발전했다. 그만큼 컴퓨터는 낯설음을 넘어 우리사회의 '규정기술'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까지 변화시키는 기술로 향후 가장 중요한 산업기술이 컴퓨터와 정보관련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잖습니까?"

김응철교수의 원래 전공은 복지행정이었다. 복지행정을 공부하며 사회통계와 조사분석을 하다보니 컴퓨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1년여 동안 밤먹고 잠자는 일상생활과 전공공부 빼고는 온통 컴퓨터에 매달렸다.

김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태고 · 보조어록 일자색인, 한글경전 검색프로그램, 도서관리 프로그램, 불교관계 석박사논문 검색프로그램, 종무관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특히 경전검색 프로그램은 한글대장경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해 조당집 보조어록 등으로 주제별 어휘별 목차별 검색이 가능토록 돼있다.

"불교계의 컴퓨터 활용은 신도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종무행정 전반에까지 사용될 때에 이르렀습니다. 단위사찰-교구본사-총무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효율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죠."

〈정성운 기자〉

도봉구불교협 회장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도봉구 불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도봉구불교협은 지난달 22일 「나라와 도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승가대 동창회장에



한보광스님(부산 구덕산 보타원 주지)은 최근 해인사 승가대학총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총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법화경 강좌 개설

장산스님(부산동명불원 주지)은 동명불원에 정기 법화경 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금요일은 저녁 7시에 강의를 한다.



◇ KBS 불교연구회는 지난 10월 경북점촌 김용사를 방문 신행생활과 가족애를 함께 엮어나가기도 했다.

탐 방
KBS 불교연구회

불교 왜곡보도 막는 방송 파수꾼

신행체험 나누며 매월 공부 … 86년에 결성

방송이라는 매체속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교학적 공부를 바탕으로 착실한 불교신행활동을 하고있는 곳이 바로 KBS 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다.

86년 방송계 최초로 불교신행모임을 결성, 타 방송사의 불교신행모임 결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방송국이라는 특성상 일반직장인들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시간나는 틈틈이 회원 서로가 신행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의 밑바탕을 이룬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만큼은 모든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큰스님을 초청해 높은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아로새기는 소중한 신행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역촌동 삼보사 지원스님을 모시고 금강경의 사상과 올바른 신행생활에 대해 법문을 청해 듣기도 했다.

KBS 불교연구회는 교리공부를 통한 불교 이해뿐만 아니라 회원개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서울에서 인접한 와우정사, 만의사 등에서 참선과 3천배를 하는 철야정진으로 돈독한 신심을 키우는 수행도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명찰을 찾아 그속에 배어있는 천오백년 불교역사의 살아있는 맥박을 전 회원이 함께 느끼기도 한다.

지난 10월 경북 점촌 김용사로 향한 버스안에는 회원 가족도 동행해 가족애와 불심이 가득한 가을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자기만족의 신행생활에서 벗어나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실한 불교포교를 하는 KBS 불교연구회 회원들. 지난달 24일 KBS "한밤의 이야기쇼"에 출연한 소찍새 마을 일력스님에 대해서 담당PD와 협조하는 등 각자 자기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통해 서로 돕는 자연스러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드라마 상에서의 잘못된 불교 묘사, 왜곡된 보도 전달 등으로 자칫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되기도 하는 요즘 KBS 불교연구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스컴의 역할을 현장에서 절감하며 바른 불교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 불교TV 불자주주공모때 신청서를 하나하나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참여토록해 많은 회원들이 어엿한 불교 TV의 주인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하는 전문불교TV로서 발전하길 바란다."는 왕경태 회원의 말처럼 회원 모두가 불교TV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남다르다.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꼭 연등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KBS불교연구회 김학선회장은 "수행법회를 통해 신행생활의 구체적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배울것"이라고 불교연구회의 나아갈 바를 밝혔다.

이밖에도 혜명양로원, 소찍새마을 등을 찾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참 신행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은자 기자〉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운담 정현 재무:정종
총무:정찬 기획:세명
교무:일화 포교:광운
본말사 대중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방장:원담
주지:법장
본말사 대중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무공
본말사 대중일동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❼

생명의 해방 <放 生>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대하라

"인간과 자연은 하나" 미물도 내몸같이 여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광활한 공간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의 사량의 넓은 곳이다. 우리의 지구는 우주에비하면 한점의 티끌에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우주에도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유정무정의 생존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어떻게 살고 있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성을 갖고 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 침범해서도 안되고 살상을 당하여도 안된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한시도 쉼없이 생명의 살상이 단말마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가여운 일이고 비참한 비극이다.

사물을 치는 이유

사찰에서는 우람한 범종을 울리어 지옥계의 생명을 안위하고 북을 두드리어 축생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명송을 보낸다. 또 목어를 쳐서 물속에 살고 있는 어패류 일체를 보호하는 법회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교설한 자비정신을 널리널리 전하는 법음이다. 불교는 생명존존중의 종교이다. 생명처럼 아름답고 지존한것은 없다. 그러므로 방생은 생명의 해방이다. 남이 새생명을 상새하면 거부하고 반항한다.

생명은 오래오래 살기를 후원한다. 죽기를 원하는 생류는 없다. 그러나 제 욕심이나 제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모든 생명은 제가 살만큼의 목숨을 점지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서로의 생명에 대해여 존엄성을 인식하고자고 서로서로에게 연결짓는 윗기이 바로 방생의 뜻이 된것이다.

늘 버릇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알이있고 보면 오늘도 루치지 않고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꼭 훔쳐야 속성이 풀리는 심보가 있다. 이것은 훔치는 업이 쌓이어 제 자신도 모르게 훔치게 된다. 이러한 일이 좋은 행업인가 생각해야 한다.

산에 사는 사람이 산새와 이야기하고 함께 노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산에 살면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먹이를 먹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다.

한 3년 계속하니 산새가 처마밑까가지 아니 마루청, 방안까지 찾아와 그 사람과 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젠 어깨, 손등에도 앉고 사람이 알아 듣지 못하는 노래도 지저귀면서 즐거운 눈망울을 빛내고 있다. 만약 그 사람이 해꼬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새들이 가까이 할 것인가.

미물도 저를 아껴주고 감싸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적 동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생은 삶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의식이라하더라도 미신적인 행위라고 치부하면 절대로 안된다. 형식속에 의미가 담기고 또한 순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방생을 고기나 자라를 호수나 강에다 해방시켜주는 의식으로 치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생의 깊은 의미를 저버리고 한갖 행사로 하거나 의식적 법회로만 하면 안될 것이다. 방생은 모든 생명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알뜰한 생각을 아로새겨야 한다.

지구살리기 환경운동

오늘날 우리는 이 방생의 영역과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영역의 확장은 바로 환경보호인것이다. 이 우주는 地·水·火·風으로 이룩되어 있다. 땅이 살아야 하고 흙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 물이 맑아야 하고 생수가 되어야 한다.

불이 무독성의 기운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바람이 맑게 되어 언제나 생기도는 공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지구의 모든 땅, 물, 불, 바람이 절대적 오염치를 넘어가고 있다. 땅은 죽어가고 물은 썩어가고 불에는 독소가 들어있고 공기는 맑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들이 방생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이 지구와 우주를 함부로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계의 방생법회는 환경보존, 지구살리기, 우주공존의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본다면 방생은 넓은 의미의 생명보존관이 된다. 생명의 해방 이것은 자연은 자연으로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오래 사는 생명이 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영구히 자연으로 존재되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자비사상이 자연사랑으로 연결되고 자연이 방생되는 공간으로 생명되어야 할 것이다.

산문밖의 선율

국악인 김영동

"인생은 한바탕의 교향곡"



예불·禪의 아름다움 국악으로 승화

여름의 시원스럽던 물줄기도 말라버린 세종문화회관 뒷편 광장 분수대.

초겨울의 햇살이 가야금의 고음같이 널려 있는 분수대 옆건물 3층은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이다. 분주하게 악기를 챙기고 자리에 앉은 단원들은 조율에 정신이 없다. 다양한 악기들의 조율시간은 혼란 그 자체다. 저취와 평취 역취를 무질서하게 뽑아대는 대금주자. 어찌들으면 새벽 닭의 울음같은 피리소리, 가야금 거문고의 둥당거리는 소리, 무질서 속에서 저마다의 음색을 내뿜는 조율의 시간 속으로 김영동씨가 들어선다.

국악의 대중화를 말할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김영동씨. 이미 그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동남아 미주지역에까지 알려졌다. '쉬운 우리음악'을 만들고 '훌륭한 민족정신'을 선율에 담아낸 김영동씨는 수차례의 공연과 음반을 통해 우리음악의 맛을 일깨운 선두주자이다.

혼란스럽던 조율의 시간을 뚝 끊어버리는 김씨의 몸동작 그것은 지휘봉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간단한 동작에 우주가 숨을 죽인 듯 연습실은 고요의 정점으로 몰려간다. 결코 길지도 않은 그 고요의 시간 속에 선 김씨는 어느 깊은 산 암자의 풍경소리를 생각한다. 고요를 깨는 소리. 마침내 그 소리도 고요 속에 물려가는 여운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그의 손이 원을 그리듯 내려 오면 이미 모든 악기의 음정은 정확히 맞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두시간 동안의 연습이 이어진다.

김영동씨는 전통음악을 문화재로서 보존 전승하느냐 미래의 음악적 기준으로 끌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후자를 택한다. 그래서 그는 늘 오늘의 음악과 내일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신선한 맛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자세는 사뭇 진지하다.

현재는 기악곡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는 '영산회상'에 가사를 얹은 것이라든가 신라의 음악인 '수제천'을 오늘의 '신수제천'으로 만든 것, 또 '단군신화'를 선율로 표현하고 '개벽'의 꿈을 곡으로 꾸어 보는 것들은 김씨만의 감각일 것이다.

특히 김씨가 절집에서 오랫동안 행해오는 '예불'을 음악으로 만들어 냄으로 우리시대의 불교음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은 신선감 이전의 충격이었다.

—예불을 음악으로 표현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 예불은 그 자체가 음악입니다. 음악으로 행하는 의식의 음악적인 부분을 악기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는 89년도에 사흘을 묵으며 송광사에서 예불의식을 녹음했다. 그 사흘의 신들린 듯한 감정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 선(禪) 음악도 만드셨는데 직접 참선을 하면서 곡을 만드셨는지요.

▲ 아닙니다. 음악 만드는 과정이 제게는 참선입니다. 선율이 제게는 선방이거든요. 선율 속에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한바탕의 교향곡과 같은 것입니다.

김씨는 몸으로 하는 참선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음악가의 어쩔 수 없는 근성일 것이다. 그는 늘 음악으로 참선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줄기를 찾아낸다. 그 빛줄기는 당연히 선율로 질서를 부여받고 악기를 통해 대중의 가슴을 파고든다. 이 긴 과정이 그에게는 결코 길지 않다. 처음도 끝도 모두 음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씨는 몸으로 하는 참선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음악가의 어쩔 수 없는 근성일 것이다. 그는 늘 음악으로 참선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줄기를 찾아낸다. 그 빛줄기는 당연히 선율로 질서를 부여받고 악기를 통해 대중의 가슴을 파고든다.*

김씨는 70년대에 만든 영화·연극 주제곡과 국악가요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최근의 작품들에서는 철학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그만큼 음악적 관심이 숙성되고 있다는 것일게다. 매년 그는 '소리여행'을 공연하며 대중의 가슴과 만나고 또 스스로의 성장을 가늠한다. 올 여름에는 동남아 5개국에서 순회공연하며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도 했다. 요즈음 김영동씨가 몰두하고 있는 작품은 '토지'이다. 박경리씨의 소설을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년 4월 쯤에 내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임연태 기자〉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조실: 전관응 큰스님
회 주 :오녹원 총 무 :손효담 문화사회국장 :송도진
부주지 :유법성 교 무 :장대혜 호법국장 :박정신
기획조정실장 :김법등 재 무 :양장명 연수원장 :이양길(法日)

‖대한불교 조계종 제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도 영‖

사암승가회회원일동
일법원관 행주정공 주석
옥안북원관 천국고통음 암사사사사 정지일주
능옥화화륜정 지일주석
법선능성법영 대원일광
공공진륜래돈 운륜공국
혜원성도상혜 덕성일정
선덕규운팔신 영천금고
국음정지성광 월황당림
사암사사사암 사사사사
우수응성우용 조선원광
월동현갑일각 명회법지
심익산문수사 암사사사사 사사사사
곡자운명원지 주원복
사백자남불상 선대
사사사사암사 사사사사
원수심암음소 각국성림
대정안단관안 원연법숭
혜정수홍웅현 중광오헌
진월계지도법 법혜종법
사사사사암사 사사사사
복룡수해선신 봉암등림
홍청문망학국 위화원학
석원우정일성 근곡명혜
운지성도성의 재송삼원
사사사사암사 사사사암
상광적고성고 고락우소
실송은남칠서 천극법학

법난 시대별 연구 활발

권력유착 · 교계 타락 · 내부분열서 원인 찾아

조선조~현대까지

한국불교의 법난을 불교사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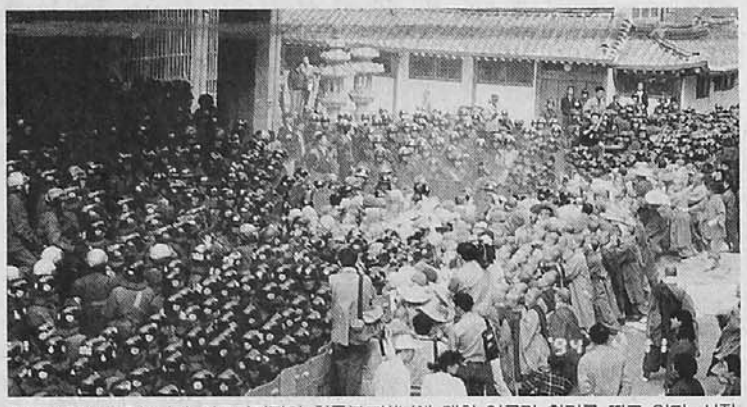
최근 발표된 법난관련 논문은 조선시대와 일제 · 해방이후 그리고 올봄의 법난까지 시대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같은 논문은 김태형(경주 신라문화원 간사), 박희승(개혁회의 총무원 포교부 기획위원), 정광호교수(인하대 사학과)가 〈석림〉제28집에, 류승무 교수(중앙승가대 복지학과)가 〈중앙승가대 논문집〉제3집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 논문은 한국 불교사에 나타난 법난에 대한 국민과 불자의 의식을 새롭게 방향지우고, 법난지체의 상황묘사를 넘어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태형씨는 「조선시대 법난에 대한 소고」에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선의 법난불교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라고 전제하고, 현실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조선의 법난불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김씨는 "해방이후 정권교체기, 특히 정통성을 상실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정권이 집권을 할 때마다 발생했던 법난은 조선왕조의 불교탄압을 전례로 모방한 현대판 조선의 법난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불교법난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조계사사태의 한모습.

김씨는 역사에 나타난 불교탄압의 이면에는 반드시 당시 불교계의 타락이 존재했고, 특히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심할수록 법난의 강도도 또한 강했다고 지적하고, "조선의 법난은 유교의 발전을, 해방이후 공작정치적 법난의 결과는 기독교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광호교수는 「일제 침략시기의 법난상황」에서 일제 침략시기 속에서 불교계가 겪었던 법난의 배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정교수는 "일제의 동화정책의 전위역할을 식민지의 불교가 수행토록 강요받았다"고 말하고, 일제 강점시대 우리 불교의 법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사찰령(寺刹令)이 일제의 불교탄압의 주요 도구였다"며, "일제는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 사법등을 통해 한국교정(敎政)을 마음대로 장악했고, 친일 본산 주지들은 이 법령들을 기초로 많은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희승씨는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법난과 그 교훈」을 통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정과 역대정권의 종교정책과 불교법난의 배경을 살피고, 그 속에서 불교자주화의 방안을 모색했다.

박씨는 해방후 불교인들이 일본불교의 잔재를 자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실패한 이유로 '불교계의 분열'을 들고, "미군정은 이 틈을 이용해 사찰령을 존속시켜 총무원을 어용화하고 불교혁신운동을 탄압해 결국 지금까지도 불교혁신의 과제를 남기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씨는 또 "불교가 내부분열로 시끄러운 동안 기독교계는 크리스마스의 국경일 제정, 기독교방송의 설립, 군목 · 형목제도의 특혜적 혜택,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등을 통해 1945년 30만도 안되던 기독교인을 50년만에 천만명으로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1994년 불교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발표한 류승무교수는 올봄 법난의 원인이 "불교와 정부의 관계 및 불교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자기 모순 속에 빠진데다 그 모순이 '김영삼정부-서의현체제'에 이르러 폭발한 데 있다"고 파악했다.

류교수는 또 이번 조계종사태가 성공한 혁명의 보편적인 4단계를 그대로 밟아갔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비폭력 전략, 전국승려대회, 산문폐쇄 등의 전략 · 전술은 가장 불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이번 사태의 남은 숙제로 "불교개혁의 실천과 제도화 및 불교계와 정부간의 끊어진 고리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들었다.

한국불교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사회관 정립 및 진정한 불교 자주화를 위해서도 법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理 · 事는 일심을 설명하는 용어"

송재운 교수 「화엄의 심성설」서 밝혀



◇송재운교수

동국대 송재운 교수는 지난달 25일 대우재단빌딩 강연실에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송석구) 주최 제65회 월례 학술발표회에 참석, 「화엄의 심성설」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송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화엄에서는 사법계관(四法界觀)을 확립하고 있지만 그 근본원리는 이(理)와 사(事)이고, '이'와 '사'는 일견 이원적인 대립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심(一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계는 일심의 소현(所顯)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하나라는 뜻의 일진법계(一眞法界)"라고 설명했다.

송교수는 화엄 심설(心說)의 특징이 "법계의 총상과 별상을 즉일즉다(卽一卽多)의 논리로 원융회통시키는, 즉 개별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전체로서의 조화성을 강조하고 동상(보편성:同相)과 이상(특수성:異相), 성상(이룸:成相)과 괴상(소멸:壞相)등의 육상(六相)을 원융자재의 세계로 일깨우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그 밑바탕에는 심의 공성(空性)이 자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태고선풍 연구」등 9편 논문 발표

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학장 송산)는 지난달 28일 정진관에서 제3회 교수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논문발표회에는 △종범스님의 「태고보우의 선풍에 관한 연구」△태원스님의 「정토사상에 나타난 장엄(莊嚴)」△본각스님의 「화엄관법(華嚴觀法)에 있어서 공관(空觀)의 의의」△김상영교수의 「보우의 불교부흥운동과 그 지원세력」△조명렬교수의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동화고(童話考) 1」△보각스님의 「불교인의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등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종범스님(불교학과)은 논문에서 "태고에 대한 관심이 법통설 · 종조설로 논쟁이 계속된다면 그에 관한 이해를 외적인 데서만 찾는 모순이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태고의 생애를 구도기, 외유기(外遊期), 교화기로 구분 서술하면서 태고의 선풍이 임제(臨濟) · 석옥(石屋)의 선풍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논지를 개진했다.

한편, 보각스님(복지학과)은 보살계를 수지하거나 신행년수가 오래된 불자일 수록 인공임신중절 수술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 충격을 줬다.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엮어져 발간됐다.

석림 28집 발간 논문 9편 실려

동국대학교석림회(회장 하림)는 최근 〈석림〉 제28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한상범교수(동국대 법학과)의 「현대불교인의 사회인식의 심화를 위한 제언」, 정천구교수(인천대 정외과)의 「불교정치론의 현대적 조명」, 김성구교수(이대 물리학과)의 「현대물리학과 색즉시공」, 김용운교수(한양대 수학과)의 「불교와 과학」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종익박사 유고집 발간 15일 송현클럽서 출간기념



◇고 이종익박사

고 이종익박사(전 동국대교수)의 유고 논문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 논문집에는 원효 · 보조 · 조계종 · 천태종 · 선학편 등 불교관련 부분과 종교와 역사 · 한국사상 · 중국사상편 등 8편으로 분류, 모두 31편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논문집 출간기념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반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릴 예정.

질병은 어떤 업보로 오며 대처 방법은

문 저는 20여 년전부터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습진에 시달려 왔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기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병은 과거의 어떤 인과업보로 오는 것이며, 또 제 병을 공부재료로 삼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근본에 어긋나지 않는 길인지요.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 최호자)

답 먼저 제 몸에 대한 생각부터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이 육신을 '내 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글우글 공생하고 있는 소우주-공동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 많은 중생의 국토인 셈이죠. 마치 이 지구나 우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들이 모여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들 몸 속의 중생들도 수억겁을 거쳐온 의식으로 뭉쳐서 몸을 지구 삼아, 집 삼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기 이전에 수 많은 중생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자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 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들 하던가요. 대통령이 나서고, 사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경우라면 제 주인이 나서야 하겠지요. 그럼 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자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사량 · 자신의 의식세계를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인이라면 왜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왜 병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처리하지 못합니까? 실은 그게 주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자리, 참 나 주인공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러니 참 주인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철석같이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육신, 이 공동체를 형성케 한 주인이 내 몸을 해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나를 있게 한 그 근본과 지금의 나는 따로따로 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몸에 병이 생겼다 해도 그 병은 다 '나'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이니 '나'와 다르지 않고, 나를 있게 한 근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량 분별을 지어 펄펄 매지 마시고 불 아닌 근본자리에 턱 놓고 '주인공의 일이니 주인공이 해결하라'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도 나와 둘이 아니니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악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공과 불법공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문 저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기공법(氣功法)을 수련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공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 최동형)

답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기공법으로 몸을 다스렸다고 하는 데 단전호흡으로 기를 모았다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기공을 하다가 별의 별 탈을 얻어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공법이란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몸 속의 수 많은 생명들, 의식들은 기공과 아랑곳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를 잘 다스렸다 해도 이 몸뚱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으로 다스려야 참말로 사대(四大)를 타고 통신이 잘 되어서 자동적으로 탈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모자라면 보태고 넘치면 뺄 것은 빼어내서 그야말로 '마음 먹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공법을 한다지만 이왕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본래 무량한 보배창고이니 기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몸도 자재로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공법을 연마해서 어떤 능력을 얻어보려 한다는 데 요즘같은 문명시대에 오신통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안방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을 보고 듣고 잠시 잠깐에 대양을 건너는 세상에 말입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니 기공보다 불법공부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으면 생활에 소홀할 것 같은데

문 저는 무종교입니다. 다만 요즘와서 불교 관련 책을 자주 보아서 많은 매력을 느껴 불교를 믿어볼까 하는 데 불교를 믿게 되면 생활에 소홀해 지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4동 · 구철형)

답 어느 때 누가 내게 묻기를 사람은 얻기 위해 삽니까 살기위해 먹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되묻기를 '목이 말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데 그때 내가 이걸 살려고 마시나 마실려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하니, '그런 생각없이 그냥 먹지요' 그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속에 불법이 있고 거기에 불교가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을 떠나서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겪는 가운데 산 진리, 산 교훈이 있습니다. 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을 구한다고 하지 마십시요. 따로 구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활도 잃고 불법도 잃게 됩니다.

물 한 포기라도 불교 아닌 게 없고 벌레 한 마리라도 불교 아닌 게 없으니 살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게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녹 원
동국대학교
총 장: 민병천

중앙승가대학
학장 임 송 산
교수 및 교직원 일동
전화 925-5507~9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삼화불교대학
학장 혜 인
· 불교 유아교육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 불교미술과
· 불교학과
/학생일동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1080, 511-2026~8
팩스 : 511-1080

수 요 인터뷰

문화재 훼손의 敵은 風化현상 보다 사람



황수영 박사

〈전 동국대학교 총장〉

대담 : 최정희 편집국장

"성보 관리위원회 다시 결성돼야 해요"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에서 수업하고 고유섭(高裕燮)선생과의 인연으로 길을 바꿔 고고학에 몸바친 황수영박사(黃壽永·76)는 저서〈불교와 미술〉의 머리말 첫 귀절을 이렇게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스스로의 갈길이 마련되었었다."

그로부터 반백년. 불교미술과 성보문화재에 더욱 애정을 갖고 '갈길'을 개척하고 지켜온 황수영박사를 만나 고고학 50년과 날로 심각해지는 문화재 훼손 그리고 그 보존책에 대해 들어본다.

—제10회 하성(霞城) 학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고 이선근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고, 국학연구에 공이 큰 분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이 어떠세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다가 내놓았더니 상을 주더군요. 공보다는 사람은 죽는날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쉬지말고 일하라는 뜻으로 받았습니다.

고고학 외길 50년

—우리나이로 희수(喜壽)이신데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다는 증표이겠죠.

▲나는 희수라는 말을 안써요. 그말은 일본 사람들이 즐겨쓰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일을 안하면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이 감퇴되거든요. 그래서 직함이 크고 작고간에 다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에 문화재위원직도 내놓았어요.

—경륜으로 이끌어 주셔야죠. 지금말고 계신일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동국대 명예교수와 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로서 강의를 하고요, 안중근의사 숭모회 이사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오래된 최고령 이사일겁니다.

—왜 안의사숭모회 이사직은 안 내놓으셨어요.

▲안의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위태로울때 구국의 일념으로 의로운 행을 보여주신 점을 크게 존경합니다.

—평생 고고학에 몸바쳐 오시면서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 뒤돌아보면 감회가 크시고 뿌듯하실때도 있으시겠습니다.

▲업적이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칭찬하면 안돼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잘못된건 걸러내야 하거든요.

—박사님의 고고학 연구 50년을 이루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문무대왕 수중릉 발견은 업적중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또 석굴암 연구도 그렇구요.

▲그게 어디 나혼자 한일인가요. 우리 선생님(고유섭)이 '경주에 가면 대왕암을 찾으라' 고 개성에서 나오는 〈고려시보〉에 기행문을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감은사지 답사때도 '여기가 중요한 곳이니 여기 저기 찾지 말라' 고 일러 주셨어요.

그분의 날카로운 선견지명이 그 작업을 하게 한것이죠. 선생님께서는 원고만 써 놓으시고 해방 1년전 돌아가셨어요.

—대왕릉의 사리장치가 눈에 들어온 그 순간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시겠죠.

▲말문이 막힐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의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인 장충식교수도 있었어요. 한 학생이 '석굴암 대불을 향해 최대 경례를 하자' 고 외치니까 일행 모두 따라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은사를 꼭 '우리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서 학문의공을 스승에게 돌리시는데, 정영호교수님도 박사님을 '우리 선생님' 이라고 하시거든요. 아름다운 가풍으로 보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이 '아미타불' 이냐 '석가모니불' 이냐 하는 이견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나는 석굴암 부처님에 대해 의심을 가져본일이 없어요. 아미타불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석굴암의 요사채 이름이 수광전(壽光殿)이고, 앞뒤 짤린 석굴암 상량문에 '미타굴' 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의심의 여지가 있겠어요. 또 김대성이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건립하고 전세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창건했으니, 전생 부모를 위한것은 아미타 신앙 아니겠어요. 단지 수인이 항마촉지인이라는 점이 문제인데 당시 신라인들은 이 수인을 아미타불 사상으로 해석했어요.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불이라고 한것은 일본인이 발설한 것 입니다. 그들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부처님도 석가여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람만 창씨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까지 창씨개명 했다고요.

문화재에는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대의 조형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물건과 친숙해져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인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고미술품을 볼때는 10번 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먼저 연구하여 더 잘 알아야 할일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석굴암을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니까 좋아들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국민들이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창씨개명한 부처님

— 경복궁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크게 훼손돼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용산에 새 박물관이 건립되면 옮길 계획이라는데요. 신중론을 펴거나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도 실내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더이상 야외에 둘 수 없는 상태예요. 원각사지 10층탑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한도까지 왔어요. 이제는 손만대면 떨어질 정도예요. 탑에다 지붕을 해서 씌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실내에 전시하고 그 자리에는 똑같은 새탑을 세우거나 아니면 앞으로 천년 갈 수 있는 오늘의 탑, 또는 독립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탑을 세우면 되죠.

—옮기면서 파손될 우려는 없을까요.

▲걱정안해도 됩니다. 해체하면 아마 기막힌 보물이 나올 겁니다. 원각경 언해본과 회암사에서 분신했다는 사리가 나올지도 모르죠.

—국립중앙박물관을 해방 50년이 되는 내년에 허물고, 용산으로 이전 한다는 설에 대해 아직도 찬반이 분분합니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앙청 건물이 치욕의 상징이므로 헐긴 헐어야 하지만 효용가치가 없어질때까지 쓸만큼 쓰면서 좀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입니다. 헐 수 있는 적기가 올 것입니다. 용일이 되면 기념사업으로 세계적인 박물관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청 건물을 박물관으로 쓰기위해 3백억이나 들여 수리해 놓고 이제 기능면에서 궤도에 설려고 하는데 또 옮기다니요. 말로만 하지말고 우리문화재의 과반수가 불교문화재이니까 지금이라도 속히 '성보위원회' 를 구성해서 관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전에는 조계종에 '성보관리위원회' 가 있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유야무야 됐어요. 그리고 후학육성에도 투자를 해서 사람을 길러야해요. 그래야 떳떳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설 수 있죠.

풍화보다 무서운 훼손

—반백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많은 후진을 배출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우리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교육지침이 있으실텐데요.

▲문화재에는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대의 조형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물건과 친숙해져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인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고미술품을 볼때는 10번 보라고 가르칩니다.

—남은 여생동안에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텐데요.

▲일본에 나가있는 삼국시대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정리하고 싶어요. 법륭사에 있는 백제관음, 옥충주자등을 요즘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것이고 일본에 불교문화를 전한 증표이거든요. 학술적 자료로서뿐 아니라 감상자를 위해서도 꼭 하고싶은 일입니다. 무조건 우길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검토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종단에서도 성보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면 더욱 좋겠죠.

—해방과 함께 걸어온 박사님의 고고학의 외길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셔서 후학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 축 임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국내

안양본원
원장:대행 / 주지:혜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43-72-3100,1512 / Fax:0343-72-2746

금왕지원
지원장:혜법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46-877-5000,0462 / Fax:0446-78-1896

제주지원
지원장:혜묘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064-21-4662 / Fax:겸용

부산지원
지원장:혜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2-7077 / Fax:051-403-1077

광주지원
지원장:혜월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05-230
Tel:062-225-0174 / Fax:062-227-1075

온양지원
지원장:청일
충남 온양시 실옥동 52-6
Tel:0418-44-1464 / Fax:0418-548-4487

울산지원
지원장:혜안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0522-44-0884 / Fax:0522-44-0182

대구지원
지원장:혜계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053-426-2779 / Fax:053-425-8356

마산지원
지원장:혜진
경남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147-1
Tel:0551-21-5454 / Fax:0551-41-0946

진주지원
지원장:혜근
경남 진주시 장대동 58-8
Tel:0591-746-8163 / Fax:0591-41-7125

대전지원
지원장:혜능
대전시 동구 추동 440-9
Tel:042-274-0891

포항지원
지원장:혜문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0562-75-3163 / Fax:0562-74-3503

청주지원
지원장:혜천
충북 청주시 봉명동 833
Tel:0431-273-6946

강릉지원
지원장:혜인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0391-651-3003

해외

알라스카지원
지원장:청봉
1248 Medfra Ave. Anchorage Ak. 99501
Tel:907-278-9228 / Fax:907-278-8513

뉴욕 플러싱지원
지원장:혜봉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Tel:718-460-2019 / Fax:718-939-3974

버지니아지원
지원장:혜앙
Tel:703-560-5166

시카고지원
지원장:혜지
7852 N. Lincoln Ave. Skokie ▌60077
Tel:708-674-0811 / Fax:708-674-081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지원장:혜동
⇒
Miro 1575. 1406 Cap. Fed
Tel:541-92-9286

투카만지원
지원장:청협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Argentina
Tel:5481-25-1400

캐나다지원
지원장:청각
HanMaUm Seon Center of North America Toronto Center
814 Glencair n Ave. North York, Ontario M6B 2A3 CANADA
Tel:416-789-9918 / Fax:416-789-9969

L.A지원
지원장:혜중
300 South Harvard Blvd East Hall LA. CA
Tel:2139-382-1711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7)

今日不盡 造惡日多 明日不盡 作善日少
(금일부진어늘 조악일다하며 명일부진어늘 작선일소하며)
今年不盡 無限煩惱 來年無盡 不進菩提
(금년부진어늘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어늘 부진보리로다)
時時移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시시이이하여 속경일야며 일일이이하여 속경월회며)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월월이이하여 홀내년지며 년년이이하여 잠도사문하나니)
破車不修 老人不修 臥生懈怠 坐起亂識
(파거불수요 노인불수라 와생해태하고 좌기난식이니라)

오늘만, 오늘만 하지만 오늘은 다할 일 없으니 악업짓는 날 허다하며 내일엔, 내일엔 하고 미루지만 내일도 다함없으니 선업 짓는 날 적도다. '금년만' 한다해도 금년은 다함 없으니 번뇌엔 끝이 없고 '내년부터'라 하지만 내년은 언제나 내년이니(영영)보리도에 나아가지 못하리로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낮과 밤이 재빠르게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홀쩍 그믐이 지나가고 달달이 바뀌어 가는 게 홀연히 한 해 지나 내년에 이르고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잠깐사이에 죽음 문턱에 이르네. (그때는) 이미 닭에 혹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그 후로다.

금생에 또다시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몸 받았으나 바로 이 때가 부처님 아니 계신 말법시대이니 아아! 슬프고 애닯도다.

어찌하여 고통세계를 돌고 도는가
애욕을 벗어나면 묘법세계 있거늘

부서진 수레라 가지 못하니 늙어서는 닦지 못하고 눕고 싶고 게을러 질 뿐 애써 자리들고 앉아 보았자 번뇌망상 어지러울 뿐이네.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不修
(기생불수어늘 허과일야하며 기활공신이어늘 일생불수오)
身必有終 後身 何乎 莫速急乎 速莫急乎
(신필유종이니 후신은 하호아 막속급호며 속막급호랴.)

몇 생을 닦지 아니했는데 밤낮으로 허송세월 보내며 허공같은 이 몸이 얼마나 산다고 이 한 생을 닦지 않으리오. 몸은 반드시 죽어 마칠 날 있으리니 (이 생에 닦지 않은 이 몸) 다음 생엔 어찌하려는가. (생각할 수록) 바쁘고 급하지 않으랴, 급하고 바쁘지 않으랴.

〈野雲比丘 自警文〉
〈아운비구 자경문〉

主人公 聽我言
(주인공아 청아언하라)
幾人 得道空門裏 汝何長輪苦趣中
(기인이 득도공문리어늘 여하장륜고취중가)
汝自無始已來 至于今生 背覺合塵
(여자무시이래로 지우금생히 배각합진하고)
墮落愚痴 恒造衆惡而入三途之苦輪
(타락우치하여 항조중악이입삼도지고륜하며)
不修諸善而沈四生之業海
(불수제선이침사생지업해로다)

◇아운비구(나옹화상제자)가 지은 자경문

주인공아 내말 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음 얻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오랜동안 고통의 세계에서 돌고도는가.

그대가 그 비롯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깨침의 길을 등지고 속진에 묻혀서 어리석은 길에 굴러 떨어져 언제나 온갖 악업을 지으니 삼악도의 괴로운 굴레에 빠져 들었으며 두루 선행을 닦지 않아서 사생의 업해에 잠긴 것이로다.

身隨六賊故 或遭惡趣則極辛極苦
(신수육적고로 혹타악취즉극신극고하고)
心背一乘故 或生人道則佛前佛後
(심배일승고로 혹생인도즉불전불후로다)
今亦幸得人身 正是佛後末世 嗚乎痛哉
(금역행득인신이나 정시불후말세니 오호통재라)

몸으로는 육근이 상대하는 경계를 따르는 까닭에 악취에 떨어진 즉 신고(辛苦)가 극에 달하고 마음으로는 위 없는 부처님 법을 등진 까닭에 혹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그 후로다.

금생에 또다시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몸 받았으나 바로 이 때가 부처님 아니 계신 말법시대이니 아아! 슬프고 애닯도다.

是誰過歟 雖然 汝能反省 割愛出家
(시수과여아 수연이나 여능반성하여 할애출가며)
受持應器 着大法服 履出塵之經路
(수지응기하고 착대법복하여 리출진지경로하고)
學無漏之妙法 如龍得水 似虎靠山
(학무루지묘법하면 여용득수요 사호고산이라)
其殊妙之理 不可勝言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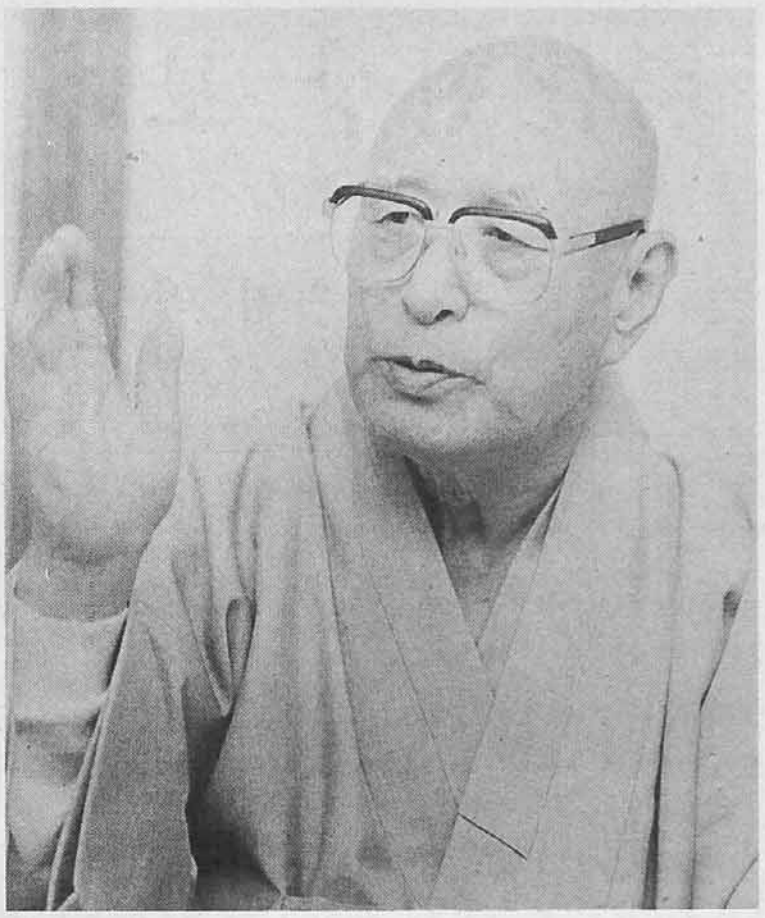
이 누구의 허물인가. (사연은) 비록 그러하나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애욕을 베어버리고 출가하여 바루를 들고 법복을 입어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자)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 번뇌에 물듦이 없는 무루의 묘법을 배우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 호랑이가 산중에 들어간듯 하리니 그 수승하고 오묘한 이치는 말로써 다할 수 없느니라.

龍眼

구독신청 : 737-8881

지상 법석

"왜 범부의 삶에 얽매어 있나



월 산 스님 <불국사 조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어긋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또 사변에 어긋납니다.
자, 대중 가운데 어느분이든지 일어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한말씀 해 주시오.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어긋났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변에 어긋났으니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침묵을 하니 불가불 산승이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월락철해중 영생불멸이라
(月落鐵海中 永生不滅)

달이 철해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철해란 글자 그대로 철로 만들어진 바다란 말입니다. 그 철의 바다에 달이 떨어졌다는 것인 데 그 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대천 세계를 비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이것은 바로 이 주장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주장자하고 하면 이치에 어긋났고 아니라고 한다면 사변에 어긋난 그것을 철의 바다에 떨어진 달을 설명한 것인 데 이것을 알아야 불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 불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명쾌히 '불교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어려운 대답입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하고 또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다 불교인 데 막상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처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해의 중생들에게 위없이 큰 법, 우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처음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한손으로는 하늘을 가르키고 또 한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며 눈으로는 사방을 둘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일곱발자국을 걸으시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홀로 존귀할 뿐이라는 이 제일의 소리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를 아는 첫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것은 곧 불교의 대의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나를 알아야 불교를 알고 불교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무엇을 설하셨습니까.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고 방등경을 8년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간은 반야경을 설하셨고 나머지 8년간은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9년간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49년간 이런 저런 경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책을 써서 설하신 것은 아니고 그 법문의 내용을 묶은 것이 경이 된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출가 이전부터 사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가후에도 설산에서 사유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곧 참선입니다.

본래 고요한 마음

자, 이제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경을 배우고 했는데 불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런 참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법을 모르고 목숨이 떨어져 죽으면 허둥지둥 갈 곳 조차 모르게 됩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갈 곳을 아는 것.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도 닦으면 죽은 후에 갈 곳은 훤히 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집착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유법,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유를 하면서 생노병사의 고통을 아셨고 사유를 통해 그 고통을 훌쩍 뛰어넘는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참선은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면 차례차례 참선을 해 나가야죠.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가만히 앉아 생각하십시요. 무슨 생각이든지 하십시요. 조사들의 공안을 참구하며 화두공부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생각을 하는 것이 참선이다 했는 데 이제 그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선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단계입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고요한 거리인데 거기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잡념을 일으켜 내는 것입니다. 본래 고요한 마음을 망상으로써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많고 고통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이 열번이 아니라 백번 나와도 제대로 교화받지 못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 · 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 · 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14,21,28 1/4,11,18,25
·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15,22,29 1/5,12,19,26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 울 여 행 특 선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日 ₩ 685,000	12月 10,11,17,18,24,25,28,29,30,31日 1月 7,8,14,15,21,22,28,29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12月 19,16,23,30日 1月 6,13,20,27日
대만(화련) 4日 ₩ 535,000	12月 7,11,14,18,21,25,30日 1月 1,4,8,11,15,18,22,25,29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12月 8,22日 1月 5,19日
마 닐 라 4日 ₩ 625,000	12月 10,17,24,31日 1月 7,14,21,28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12月 11,25日 1月 8,29日
홍콩 · 마카오 4日 ₩ 545,000	12月 9,16,23,30日 1月 6,13,20,27日	유럽 5개국 10日 ₩ 1,940,000	12月 8,15,22,29日 1月 5,12,19,26日
동남아 3국 5日 ₩ 699,000	12月 7,10,14,17,21,24,28,31日 1月 4,7,11,14,18,21,25,28日	유럽 6개국 11日 ₩ 2,140,000	12月 11,18,25日 1月 1,8,15,22,29日
홍콩(마카오)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12月 11,18,25日 1月 1,8,15,22,29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2,140,000	12月 10,17,24,31日 1月 7,14,21,28日
방콕 · 싱가폴 6日 ₩ 795,000	12月 6,8,13,15,20,22,27,29日 1月 3,5,10,12,17,19,24,28,31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12月 8,15,22,29日 1月 5,12,19,26日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12月 8,15,22,29日 1月 5,12,19,26日	사 이 판 4日 ₩ 645,000	12月 8,11,15,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12月 6,13,20,27日 1月 3,10,17,24日	괌 4日 ₩ 645,000	12月 8,11,15,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본(혼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12月 6,13,20,27日 1月 3,10,17,24,31日	시드니 · 골드코스트 5日 ₩ 985,000	12月 11,18,25日 1月 1,8,15,22,29日
하 와 이 5日 ₩ 749,000	12月 7,10,14,17,21,22,24,28,29,31日 1月 4,5,7,11,12,14,18,19,21,25日	호주 · 뉴질랜드 8日 ₩ 1,545,000	12月 8,10,11,13,15,17,18,20,22,24,25,27,29,31日 1月 1,3,5,7,8,10,12,14,15,17,19日

※ 성수기 요금 반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지상 법석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라"

번뇌망상은 스스로 만든 苦의 쇠사슬

선지식을 찾는것도 공부의 좋은 방법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쉽게 하는 공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을 많이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바라보라니 이처럼 쉬운 공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뿌리까지 보는 공부

그러나 이 공부는 대단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앉아 있되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 공부이며 고요하되 시끌벅적 마구니의 방해를 물리치는 공부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그 뿌리까지 뽑아 보는 공부인 데 겉에서 보는 범부의 눈에 비치듯 그렇게 쉬울 까닭이 있겠습니까.

참선은 근본을 파고 들어 가서 그 근본의 뿌리를 알아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 보는 이 공부를 참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알았다면 곧 그것을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부처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수행의 대의요 기초입니다. 자신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죄를 만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누가 안겨다 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신이 누구냐하는 문제는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부처인 자신이 왜 이 범부의 삶에 얽매여 있는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번뇌와 망상의 쇠사슬을 묶어 범부의 삶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처님을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환해 집니다. 그러니까 대중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차타고 어디 갈 때나 항상 고요히 근본이 무엇인가를 사유하십시요. 그러면 알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만 가리켰지 길가는 것은 자기가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요. 마음을 고요히하여 자꾸자꾸 멀리멀리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향해 뒤돌아 보지말고 자꾸자꾸 나아 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합니다. 홀로 가는 길은 자칫 비뚤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스승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지식은 먼저 깨달아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친견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 데 선지식을 찾아가 의논해 묻는 것이 친견입니다.

선지식은 어떻게 공부했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지에 계시는지를 들어 나의 공부에 도움을 받는 것은 진리의 길을 빨리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마음을 닦고 또 부지런히 선지식의 이야기에

참선은 근본을 파고 들어 가서 그 근본의 뿌리를 알아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 보는 이 공부를 참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알았다면 곧 그것을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부처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수행의 대의요 기초입니다.

처의 가르침을 자기화하려는 노력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분학가, 역사가, 또 무슨 기술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딸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벼슬이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한낱 범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나는 안죽는다. 영원히 산다고 우겨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년전의 내모습과 지금의 내모습이 다르듯이 10년후의 모습 또한 다를 것입니다. 변하고 또 변해가서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업을 따라 갑니다.

죽은 뒤에 가는 곳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서쪽에 있지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극락세계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이 서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꾸 자꾸 서쪽으로 나아갑시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라 하셨으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는 높게 높게 보고 땅을 볼 때는 깊게 깊게 사방을 볼 때는 멀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런 큰 마음으로 '이 뭣꼬'하며 참선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쪽으로 힘찰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마음을 닦으면 불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산승이 줄곧 불법이 무엇이냐를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 불법이 뭔가를 답변해 드려야 겠군요.

자, 잘 들으시요. 내 말을 잘 들으시요.

"무엇이 불법의 고요하고 고요한 큰 바다냐 안동소주는 40도더라"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리의 묘체, 내가 무엇인가하는 고민이 확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좌선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을 등지고서 참선을 했는 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달마대사가 등진 것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과 그 말씀을 등지는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달마대사는 열반에 들어 철관에 넣어져서 묻혔는 데 그는 철관을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법력이 놀랍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할 사실은 대사가 신발 한짝을 철관에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신발 한짝은 들고 나오고 한짝은 남겨 놓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사가 열반한 뒤 3년후에 해체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시신은 없고 신짝하나만 덩그라니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달마대사의 행적을 그 자체가 무량한 설법입니다. 그 행적들의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조사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간화선으로써 가능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자신의 마음자리를 들여다 보면 달마의 행적이 갖는 의미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 한짝을 남겨 놓은 달마의 마음과 그 의미를 참구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진리의 실상은 저절로 알게됩니다.

사유하는 자세 참선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부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⑦

블랙 홀

김 성 규

모든 물리법칙이 무력해지고 시간과 공간마저도 사라져 버린 또 하나의 우주, 우주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블랙홀(검은구멍)이란 낱말은 1969년 미국의 과학자 존 윌러가 2백년 전에 언급된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어낸 말이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면서도 상상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빛에 관해서는 두가지 이론이 있었다. 하나는 뉴튼이 지지했던 빛의 입자설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파동설이다. 오늘날 우리는 두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으로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 입증되었다.

빛을 파동으로 이해했을때 빛이 중력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빛이 입자로 되었다면 빛도 포탄이나 행성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가 무한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력이 빛의 속도를 감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갖고 있다는 뢰머의 발견은 중력이 빛에 중요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미첼은 1783년에 〈런던 왕립협회 철학 보고서〉에서 별의 질량이 매우 크고 조밀하다면 중력장이 커서 빛이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것과 비슷한 제안을 수 년후에 프랑스의 과학자 라플라스도 발표하였다.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별의 일생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별은 엄청난 양의 수소가스가 자체의 중력으로 스스로 수축할 때 형성된다. 수축할수록 기체의 분자는 더욱 빈번하게 빠른 속도로 부딪치면서 기체가 뜨거워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체가 너무 뜨거워서 수소(H)원자가 충돌할 때 서로 튕겨나가는 대신 서로 붙어서 헬륨(He)을 만들게 된다(成). 마치 통제된 수소폭탄의 폭발과 같은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별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열은 기체의 압력을 높여서 중력과 균형을 이루고 기체는 수축을 멈춘다. 원자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시간이 지나 중력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별은 안정된 상태가 되어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住). 마침내 별은 수소나 기타 핵연료가 고갈되기에 이른다(壞). 모순된 말 같지만 별의 땔감(핵연료)은 많을수록 더 빨리 바닥이 난다. 별이 무거울수록 중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뜨거워야 하고, 뜨거울수로 더 빨리 땔감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별의 땔감이 고갈되면 별은 냉가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수축하게 된다. 별이 수축함에 따라 표면의 중력장은 매우 강해져서 빛마저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이 중력에 끌려 되돌아 온다(블랙홀). 별을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집합인 시공간의 구역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다. 눈에 보이는 별과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서로의 궤도를 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초대형의 별도 그대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백조좌 X-1의 발견 후 은하계 안에는 백여개의 블랙홀이 발견되었다. 결국 별의 일생



죽음과 같은상태 … 새로운 시작의 근원

은 수소가스로 시작하여 계속 연소하여 밀도가 큰 가스로 바뀌는 생명순환을 거치면서 진화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여는 블랙홀로 된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져 죽는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처럼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윤회하면서 계속된다면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생에 또 문제로 남아 있게되며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저금통장에 10만원을 저금해 놓고 몇년 후에 통장을 정리해 보면 원금 10만원에 몇 만원의 이자가 함께 들어 있듯이,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생에서 노력하고 애쓴 만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그 만큼 더 성숙된 성품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되풀이 한다면 어찌 이 귀한 생을 육신이나 즐겁게 해주면서 헛되이 보내겠는가!

불자들이여!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 건강한 삶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하고 싱싱한 사회를 만들기 마련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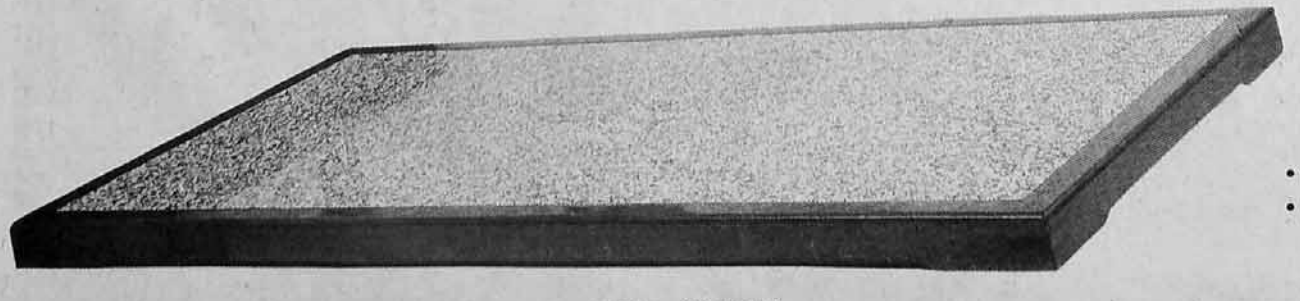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 200×104×8
•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삼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가용품 O마크획득·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전자파장해시험필 EMI 공업진흥청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7〉

비몽사몽의 한동안

명아주 고비 비름 따위의 풀들이 말라 있는 가운데 맥문동(麥門冬) 두어 포기가 자주색 꽃 뒤의 자잘한 열매를 달고 있었다.

남산 기슭 복숭아 밭에는 정작 복숭아나무는 진물이 엉겨붙은 가지를 달고 병들어 죽은 것이 적지 않았다.

누가 땔감으로도 베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백성이 도처에서 픽픽 쓰러지는 판이니 그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던 복숭아나무인들 제가 무슨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복숭아나무라고 선경(仙境)의 삶을 과시하겠는가.

바로 이같은 간난(艱難) 가운데 내버려진 송장 대접에서 깨어난 인담은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흘러 그 의식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그 복숭아 밭의 마른 풀더미 구덩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올 정도로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를 야릇한 상태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서 누운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하늘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 흐리멍텅한 시계(視界)에 눈의 초점이 모아지지도 않았다. 그런지라 그가 돌아갈 무욕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때였다. 인담의 눈에 번쩍 빛나는 것이 있다가 사라졌다. 눈이 약간 아픈 것도 같았다.

그 뒤로 그의 눈에는 흐리멍텅한 허공 대신 그 허공에 그려지는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하고 짧은 탄식이 나왔다.

그런데, 그 탄식에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새로 그려진 세계의 한 구석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방금 무욕을 마치고 난 뒤처럼 몸속의 피가 잘 순환되고 있었고 얼굴은 더할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나는 바로앞(直前)의 전생에는 과수원의 원정(園丁)이었단다."

어린 아들의 눈이 더욱 초롱초롱하였다. 마치 지난 밤의 별 몇개가 그 아들의 눈안에 숨어들었으나 그 별빛을 숨기지 못하고 빛내는 것처럼.

"그럼 전생의 나는 무엇이었지오?"

아버지가 서슴치 않고 말하였다.

"그야 내 과수원의 주인이었단다."

"그래? 그럼 어머니는?"

"나를 그 과수원으로 데려온 늙은 원정이었단다."

"그럼 우리는 전생에도 다 사람이었단 말이어요? 코끼리나 무소 그리고 앵앵거리는 모기가 아니고?"

"그래, 사람이었단다. 나무 열매들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과수원의 모든 열매들의 냄새와 우리들의 냄새가 똑같아서 새들이 우리를 보고도 마치 과수원의 열매로 알아서 깜짝 놀라거나 달아나지 않았단다"

이말을 들은 아들은 더이상 아버지에게 묻는 일이 없어졌다. 그대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하였다.

"집에 가서 바양나무의 열매 한 개를 가져오너라"

아들이 큰 열매를 개져왔다.

"여기 있어요"

"그걸 깨뜨려보아라"

"네 · · · 깨뜨렸어요. 아버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어요. 아버지"

"그 씨앗을 깨보아라"

"깼어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말하였다.

"내 아들아, 씨앗 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수(精髓)로부터 이렇게 큰 바양나무가 생겨난 것이란다. 너는 아버지의 말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정수가 전우주(全宇宙)의 정신이란다.그것이야 말로 참된 실재(實在)이고 그것이야말로 아트만(자아)이란다. 바로 네가 그것이란다."

이 말을 마친 아버지는 아주 먹찬 일이라도 마친듯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의 허공에 그려진 수미산의 세계가 저 하늘 끄트머리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가득찬 채 몇자락의 구름이 가로로 장막(帳幕)처럼 가리워져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인담의 몽롱한 의식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는 지워졌다.

인담은 그의 법령 누워있는 상태의 몸에 통증이 일어났다. "아"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았다.

통증은 가슴 부위에 있었다. 두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그가 가까스로 일어났을 때 그의 옆에 한 노인이 있었다.

"살아나셨군"

"..."

"나는 묵며산 검은 우물 뒤에서 이 더러운 한양 성안이 정화(淨化)되기를 바라는 천일기도를 하고 넌 늙은 나그네라오. 이제 한양성을 떠나려고 이 복숭아밭을 에돌아가는 길을 내려오는 참에 당신을 만난 것이오. 당신은 왜 삭발을 했오? 혹시 서린옥(瑞麟獄)의 죄수가 아니오?"

"죄수라면 죄수입니다만"

"그럴테지. 산중에도 섬에도 각각 죄수 아닌 사람이 없을 터인즉"

그 노인은 입담이 승려 신분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처지이면서 말을 엉뚱하게 꺼내어 본 것이었다.

"화상(和尙)은 천축국(天竺國)의 옛이치가 적힌 오의서(奧義書-우파니샤드)의 한 대목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내 막대기로 가슴팍을 한대 얻어맞고 살아나서 이렇게 나와 말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된 것이요"

"아"

"아! 그 아!란 이 우주의 헛소리인 것이오."

그때 인담은 그가 소중히 간직해 온 〈서하문집〉과 〈수미행〉을 떠올리고 나서 무척 당황하였다.

"왜 그러시오?"

"네 제가 지닌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저것 말이오? 소의 등에 타고서 소를 찾아가는 격이로군"

노인이 빙긋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인담이 그의 뒤를 돌아다보니 구렁의 풀더미 가운데 다른 쓰레기와 짐승 뼈 그리고 너덜너덜 육탈(肉脫)된 사람의 뼈 따위가 어우러져있는 곳에 그가 메고 온 것이 있었던 것이다.

봉놋방 주인이 이 행색이 초라한 자가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을 때 그 목숨이 지닌 짐이나 신발 따위도 퉤! 퉤!침을 뱉아 함께 이곳 구렁에 내버린 터였다.

인담은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기뻤다. 이제 가슴의 통증은 없어졌다.

그는 대뜸 노인에게 간청하였다.

"노인장께서는 결코 범인(凡人)이 아니십니다. 필시 이인(異人)이십니다. 저는 노인장께서 짐작하시는대로 충청도 바닷가에 떠다니는 한갓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 꿈이 인도한대로 이 문집이 숨겨진 데를 꿈속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예 노인에게 대충 그동안의 사연을 말한 뒤 그의 짐을 풀어 문집 세 질을 내놓았다.

노인의 표정이 차츰 굳어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당장 거덜이 날 정도의 낡은 책장을 행여나 미풍에라도 찢어지지 않을까, 마른 풀끝에라도 뚫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넘겨보는 것이었다.

실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 이상으로 받드는는 태도가 여실하였다. 멀리 만릿재 넘어 희뿜해진 흐린 날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흐음! 꽤는 오랫동안 잠자다가 나온 것이로다. 서하 임춘이라! 참으로 멋진 운명이로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시를 세상에 퍼뜨려 이 썩어빠진 한양성안에 새 세상의 봄바람이 일도록 하겠소이다! 하기야 그동안의 수백년 풍운에 이렇게 세상 모르게 숨겨져 있는 보물이 어찌 하나둘이랴"

인담도 감회가 새삼스러웠다.

"노인장의 함자(銜字)라도 알고저 합니다만"

"나 말이오? 내이름 또 한 아직 세상에 밝힐 수 없이 좀더 숨어 있어야 할 운명이니 너무 서둘러 알려고 하지 마오. 앞으로 다른 산으로 들어가 천일기도를 들인 뒤에나 나올 것인즉"

"앞으로 서하선생에 관한 일로 찾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찾지요?"

"마을마다 거리마다 굶주려 죽은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날이 벌써 몇해동안이나 이어지고 조정은 당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오. 서하의 시가 햇빛을 쏘일 때는 좀더 기다리시오."

"..."

"그동안 화상은 실컷 정진하여 아라한과(阿羅漢果)라도 증득함이 옳겠소이다"

인담은 노인의 입에서 천일기도니 아라한과니 하는 말이 술술 꼭찌 떨어진 익은 참외처럼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불취(佛趣)에도 은근히 밝은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다.

"저는 충청도 바닷가 서산땅에 이르러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욕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는 인연을 바랍니다."

"섬이라. 섬이야말로 이승과 저승사이의 꿈이지요. 한번 찾아가고자 하오"

인담은 마음 속으로 그 지향없는 노인을 단단히 믿었다. 다만 고려의 시인 임춘은 아직도 세상에 나올 운명이 아닌 분해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손에서 한 사람의 손으로 건너가는데 도무지 세상은 그의 시에 관한 기구한 일을 아는 이 하나 없었다.

남산에서 소쩍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 벌써 어둑발이 사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때였다.

"화상은 이 길을 남으로 가오. 이 늙은 나그네는 북으로 가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럼."

"그럼. 난세는 산중의 도인도 큰 시련을 당하는 법이오. 벌써 용화회상(龍華會上)을 말하다 처형당한 화상도 있으니 · · · 입을 조심하시구려"

"네"

그들의 작별은 간단하였다. 그 길로 인담은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에 탔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뱃전을 건드리며 사람과는 달리 무정(無情) 하였다.

「설법(說法) 중에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이 으뜸이지! 암! 으뜸이지!」

노들나루에서 하룻밤을 묵는 사이 다시 옷을 갈아 입은 인담은 중으로 돌아갔다. 충청도는 바람부는 날의 먼지 밖으로 멀고 멀었다.



그림 · 최규일

"서하의 시가 햇빛을 쏘일 때를 좀더 기다리시오"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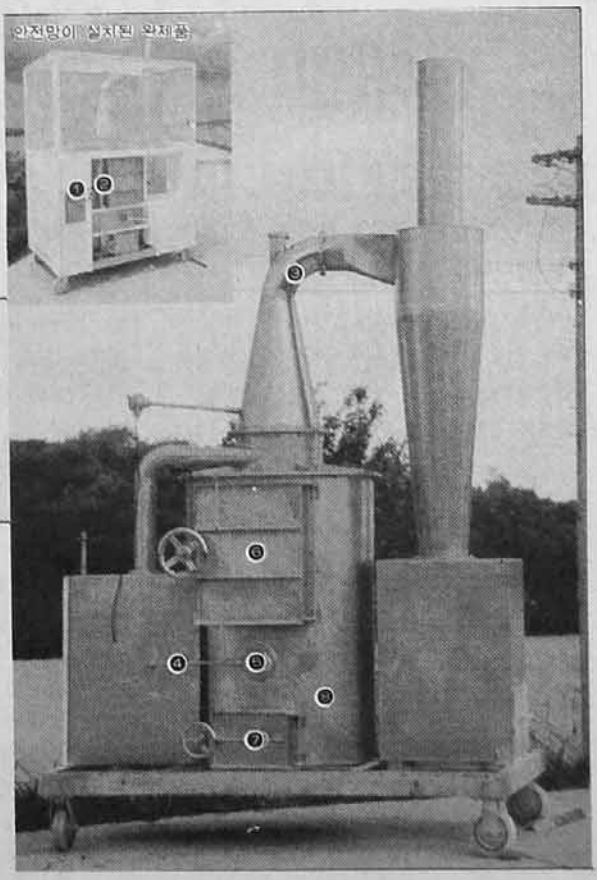
폐 비닐 ·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 ·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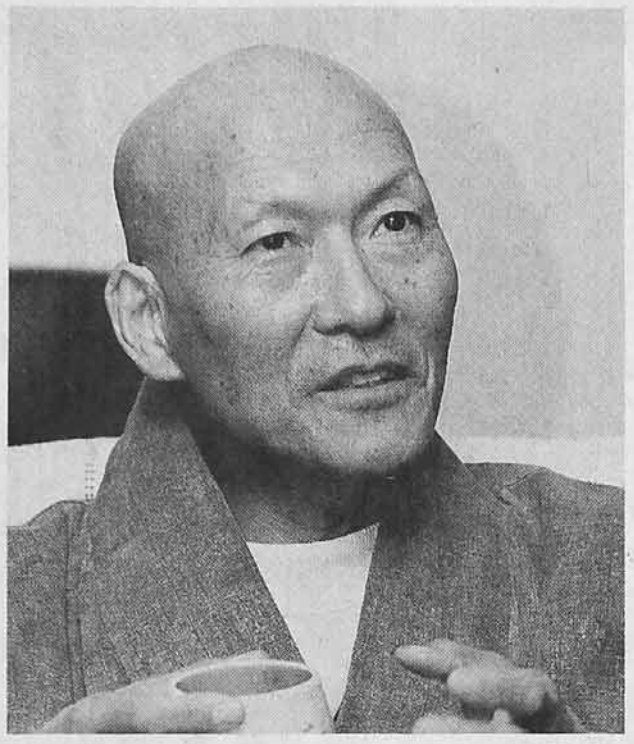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 · 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나눔은 자신을 내어 주는 기쁨"

28일, 「맑고 향기롭게」
부산 자선음악회 성황

법정스님 나눔의 기쁨 강연요지



부산=박재완 기자

요즘의 우리는 무언가 참지 못하고 인스턴트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음악을 들으니 그동안 내 감성에 묻어 있던 녹이 슬슬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쉽고 어려움은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 다하게 하며, 음과 소리는 서로 화답하고, 앞과 뒤는 서로 뒤따른다"

즉 사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동양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 상대와 함께 어울림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가슴 · 행복한 삶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텅빈 공의 세계에 의해서 유지 존속됩니다.

생명의 바다에서 보며는 부증불감, 불생불멸 즉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태어나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단지 모양만 변할뿐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듯이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근원적으로 인간이라는 밧줄에 서로 맺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연기라는 전체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이웃의 도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이웃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곧 내 분신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자신은 불행한가 불행하지 않은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들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불행해질 수 있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맑고 넉넉하게 가꾸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따뜻한 가슴을 간직하고 있는 데 다만 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 있는 모든 유정, 무정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가슴을 열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들 따뜻한 가슴에서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화도 함께 가져옵니다. 무언가를 위해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선량한 감정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면서 하루하루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요 화두이며 정진입니다. 사람을 실천하는 일, 자비심을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나누는 화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형제, 스승,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 혹은 아내의 은혜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흙 바람 등에서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한 순간도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을 아무 값도 치루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중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럽히지 않고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회향이라 합니다.

보시는 육바라밀 가운데 첫번째 실천윤리로서 삶의 완성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으뜸가는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과정 속에서 긴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사윤회의 근본요인을 탐, 진, 치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에서 벗어 나려면 먼저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보다 넉넉한 세계를 지닐 수 있고 지혜와 자비의 싹이 터서 꽃이 피어납니다.

가진 것을 베풀 때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으로 베푸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보상입니다. 또한 고통으로 마지못해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마지못해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베품되 고통도 모르고 기쁨도 찾지 않으며 덕을 행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무심히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이들입니다.

부주상 보시로 나누며 사는 사회를 다함께 가꾸어 갑시다.

사랑이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따뜻한 가슴을 간직하고 있는 데 다만 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 있는 모든 유정, 무정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만 화

法구經

정진(不放逸)의 장

부지런함은 감로의 길이요

이 향 원



녹수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방 약차를 달이고
지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신행회 모임이나 소법회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별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파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자기를
전시 ·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이나
단체 · 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735 · 3762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5, 84, 159, 301, 506 · 2…

'재미와 가르침'이 성공열쇠

어린이불서 삽화 디자인 비중 커…작가양성도 과제

어린이불서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만도 〈어린이 불교성전〉〈보름달도둑〉〈연꽃만화〉 등 20여종이 나왔다. 8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된 어린이 불서는 1백여종. 이는 2천여종에 이르는 전체 출판량과 비교할 때 5%에 머무르는 수치이지만, 최근 들어 활발한 출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좋은책 만들기를 당부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어 교리 등 다른 분류의 불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어린이불서는 기획단계부터 집필, 출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동화집 〈해탈꽃〉을 펴내 불교출판문화상을 수상했던 고종관씨는 "〈해탈꽃〉을 쓰는 동안 아이들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어린이불서를 펴내는 사람은 항상 어린이의 감각과 그들의 손짓 발짓의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땅을 기획하고 집필, 출판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불지사의 이정범 부장은 "당장 재미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고 교육적이며 훈고적인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이 가운데 부처님말씀을 전해주느냐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며 "상업성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출판의도가 우선되는 출판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불서 출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더욱 좋은책 만들기를 당부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작가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화작가 신현득씨(불교아동문학회장)는 불교동화작가의 부족이 어린이불서의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좋은 작가와 평론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작가등용문 제도의 실시, 원고료의 현실화, 출판의 활성화, 그리고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 창작욕구를 자극하는 지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각효과를 좌우하는 삽화 만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15년전 월간〈불광〉에 최초로 불교만화 연재를 시작한 이정문씨는 "활자보다 시각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만화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국적이고 불교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만화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출판 기획자 이호백씨는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언어를 가공하지 않고 작가가 '온전하게' 풍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지 차원에서도 고정관념을 넘어 모든 조형언어를 풍부히 다룰 때 진정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어린이불서 출판관계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어른들조차 어려워하는 불교용어를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느냐는 등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지혜의 나눔이 필요할 때다.

다행히 최근 어린이불서에 대한 부모들과 어린이들의 반응이 좋아 어린이불서에 대한 전망을 밝게해주고 있다. 지난 7주 동안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이 집계한 '베스트불서 10'에 〈부처님이 좋아요〉(이정문,불광) 〈연꽃만화〉(정지연,부다가야) 등의 어린이불서가 매주 상위를 기록해 이를 뒷받침해준다. 특히 〈부처님땅〉은 매주 '베스트'에 올라 일반불서 출판을 앞지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이런 어린이불서 나왔으면

어린이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부처님이 신이냐, 살아계시는 분이냐는 등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진다. 사천왕사에 다니는 이태훈군의 어머니 이선자씨는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불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특히 열반 구도 등 어려운 용어를 아이들도 이해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 다양한 불교만화의 출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형 어린이(동일국교 3년)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절에 다니는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다"며 "부처님이 어떤 분이며 불교가 무엇인지 알게해주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형군의 어머니 자비행 보살은 "꼭 불교를 드러내지 않아도 불교의 가르침이 배어있는 불서가 나와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내용의 불서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명사추천 불서100선

금강반야바라밀경

산업화·물질만능 시대의 필독서



불교와 인연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옛부터이겠지만, 나 스스로 불교에 접근하려 노력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부터이다. 아주 짧은 불연이라 나는 아직도 초발심자에 불과하고, 불경도 불서도 그리 많이 읽은 바 없어 불자로서는 부끄럽이 늘 앞선다.

반야심경에 심취되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던 얼마간이 지나고 '공'에 일단 머물고나니 곧이어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에 끄달려 한동안 화엄경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후 인연 닿는대로 이 경전 저 경전을 대했지만 주변만 우회하게 될 뿐 그 심층을 뚫고 들어갈 계기가 없어 안타까웠다.

지금 나는 '상을 취하지 말고 진여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 는 즉, 不取於相 如如不動에 정체하고 있다. 아니, 기꺼이 그곳에서 서성이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매일 한 번씩 금강경을 독송한다. 그것은 예고없이, 나를 덮친 난관에서 탈출하고자 택한 방편이었다. 소용돌이치는 고뇌, 해결책이 막막했던 암흑에서 헤어나기 위함이었다. 처음엔 그저 시간만 보냈으나, 신기하게도 독송이 끝나는 30분 후에는 갓 표백한 광목같은 산뜻함에 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것을 일러 경전의 미력이라 할일까. 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좋다.

황 명 숙 〈한양대교수·영어교육과〉

가난한 마음 어루만지는 손길 느껴

부처님 생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하는 '법회인유분'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1252인중 한 사람이 되어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괴가 도는 부처님을 대하고 있는 환희에 젖는다. 고개를 쳐들고 부처님 모습에 황홀해했을, 그때 그 자리에 앉은 나를 상상하게도 된다.

"어떻게 응당 주하여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란 수보리의 물음에 나는 깊이 동조한다. 하루에도, 아니 한순간에도 골백번 요신부리는 내 마음, 그걸 잡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파란만장한 고해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좋다, 좋다' 하시는 부처님의 목소리도 귀에 쟁쟁하고 그 인자하신 모습이 눈물에 젖어 어린다. 그리고 묵메인 독송으로 이어지는 구구절절. 어린애들을 타이르듯 자상하게 다독거리시는 그 모습, 그 말씀. 체루비읍(涕淚悲泣)함은 어찌 수보리 뿐이겠는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님이니…머무는 바 없이 보시할 것이며…뭇 상은 다 허망함이니 모든 상이 비상임을 알아야 여래를 뵙느니라…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찬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이 경 가운데 단지 사구게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러한 복덕이 더욱 크니라.'

누군들 칠보로 보시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것을 못가졌기에 보시 못하는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을 그렇듯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분. 또 그것을 능가할 보시의 길을 일러주시는 자애로운 말씀. 금강경엔 그 모습, 그 말씀이 살아서 숨쉰다. 따라서 금강경은 고도로 산업화된 현사회, 물질이 만능으로 간주되어 가진 자의 횡포로 상대적 악이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현사회,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에게 필히 권하고 싶은 경전이다.

칼럼·문학작품등 정리…추모의 글도

선원빈 유고집「솔바람…」출간

남은 이들은 그를 "밝은 등 안에 큰 눈, 정치에 편승않는 올곧은 신문쟁이, 불교언론에 불씨를 지펴 밭가는(耕田) 소같이 23년간 오직 한 길을 걸어온 불교기자"로 기억한다.

지난해 10월 53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 법보신문 편집국장 선원빈 거사의 유고집 「솔바람 소리를 듣던 사람, 선원빈」이 불지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선원빈 거사가 불교계 신문잡지 등에 집필했던 불교시사칼럼 및 기획물과 동국대 재학시절 정열적으로 썼던 시 소설 콩트 등 문화작품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스님들과 선후배 친구들의 추모글이 함께 실려 있다.

"정휴스님이 신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 다짜고짜로 이불을 들추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희고 발그족족한 알몸뚱이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이 사내가 그 유명한 선원빈 거사였다. 나와 첫 대면 장면이었던 것이다." 오현스님(낙산사 조실)은 이렇듯 천진보살로서의 그의 일면을 들추어 보여준다.

생전의 고인과 각별했던 정휴스님(불교신문 사장) 은 "당신은 교계신문의 산 역사요, 그 역사는 당신의 법신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신은 교계신문을 위한 고행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자"라며 추모의 글을 바친다.

한편 불교정화사를 가자의 시각으로 정리한 고인의 유고「불교정화의 시말」과「불가의 신풍속도」는 불교와 관련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밖에 그를 추모하는 지인들의 글 속에서 40년 가까운 불교언론이 걸어온 발자취와 불교언론인들의 위상 그리고 불교언론인들의 사명감과 애환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출판단신

모델으로 원고송수신 불광 출판부 첫 설치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부(대표 광덕)는 최근 업무효율화를 위해 편집부에 컴퓨터 모델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원고의 수신과 송신이 가능케 됨으로써 원고수집 등의 인력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사진식자도 모델으로 송신할 수 있어 제작공정 단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불교출판계에서 모델을 설치, 운용하는 곳은 불광출판부가 최초로, 불광출판부는 이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독자관리 및 불서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모델 통신료는 「불광」에서 전액 부담한다.

고 김달진〈…아내〉 우리출판사서 재출간

고 김달진시인의 〈일곱가지 아내〉가 새롭게 꾸며져 곧 우리출판사에서 나온다.

이 책은 지난 64년 법통사에서 펴낸 뒤 절판된 것으로, 고인의 사위인 최동호교수(고려대,국문학)가 오늘의 언어습관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일부 정리했다.

〈일곱가지 아내〉는 경전 속의 설화 42편을 추려 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고인은 〈일곱가지 아내〉의 서문에서 "고 속에서 낙을,한 속에서 실을, 무상 속에서 상을, 무아 속에서 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랑승만 시인 출판기념회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

랑승만 시인의 시집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 출판기념회 및 진갑연이 지난 3일 인천 현대 롤러회백화점에서 열렸다.

이 출판기념회는 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와 한글문학회 인천지부에서 주최하고 문하생들의 모임인 여천문학동인회가 주관했다. 또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불교 문학가협회에서 후원했다.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는 15년동안 반신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꺼질줄 모르는 불꽃같은 시혼으로 살아어며 불교의 세계관을 시 속에 담아온 랑승만 시인의 아홉번째 시집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분류
1	퀴즈대장경	불교방송편성부	불지사	입문
2	무(無)	김정빈	글수레	법어
3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교리
4	법구경	거해	고려원미디어	경전
5	어린이 천수경	김호성	불광	어린이
6	천수경	무비 풀이	불일출판사	경전
7	불교상식백과	홍사성 외	불교시대사	교리
8	부처님이 좋아요	이정문	불광	어린이
9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린	법어
10	대지관 좌선법	천태지자	운주사	선

구입문의:(02)737-0695

百聞而不如一見
지금까지 이런 한자교재는 없었다
이래현 선생
한자 특수 암기 비법
실용신안특허 제49356호
한자 특수암기비법 비디오
한국사회의 漢字복권운동
한자암기비법 – 그것이 알고 싶다
획기적 특보
•이래현선생님의 20여년의 연구결과와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짧은시간에 전혀 무리없이 익혀가는 가장 이상적이며 완벽한 속성 교재이다.
"한자암기비법 특허획득"
영재한문비디오를 보기전에는 한자암기비법에 대해 말하지 말라.
漢文
영재비디오스쿨
VIDEO SCHOOL
정상적인 한자교육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기업·구청·성당·개인들이 한자교육에 나서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한문의 중요성이 다시 논의되는가?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知力에서 나온다. 우리 민족문화의 길잡이였던 漢字를 안 쓰면 14억 한자(유교) 문화권에서 고립된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상호보완」이란, 우리 문자생활의 슬기…, 한자를 안 쓰는 것은 한 날개를 도려내는 것…,
한쪽 날개만으로는 문화도 국가도 비상할 수 없다
더 이상 한글 세대를 만들지 말라!
■대리점 개설문의 ☎ (02) 393-2328
■구입문의처· TEL. (02)362 - 8641~4
MEDIA 영재뉴미디어 NEW MEDIA



◇불교방송의 「음악공양의 밤」은 1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의 공연모습

연말 음악무대 풍성

연말을 맞아 한해를 마무리하는 불교음악 공양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 연말 무대를 장식할 음악회는 자선공연에서 정기공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풍성하다. 이들 음악회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로 불음을 통한 자비나눔의 자리로 마련된다.

신작 찬불가 20곡 발표 — 94 음악공양의 밤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94 음악공양의 밤」이 12월 12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펼쳐진다.

'음악공양의 밤'은 찬불가 제작 5개년 계획으로 치뤄지는 행사로 귀의, 참회, 축하, 발원, 공양, 열반의 의식에서 부릴 의식용 찬불가를 개발 발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테너 시명스님, 소프라노 김현숙씨, 베이스 김종진씨 등 3명의 독창과 조계사 보리수합창단의 중창, 6개팀의 합창단이 신작 찬불가 20곡을 소개한다.

95년도에 회향하게 될 「음악공양의 밤」은 91년부터 한해 20곡씩, 내년이면 100곡의 찬불가를 발표하는 대불사를 성취케 된다. 이 음악회는 찬불가 보급새장을 마련한다.

예매처는 불교방송국 6층 사업부, 705 -5251

수익금 불우이웃 100명에 전달 — 찬불가의 밤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은 중앙합창단 창단연주회를 통한 자선음악회로 12월 19일 인터콘티네탈호텔 2층에서 6시 30분에 열린다.

불교방송과 중앙불교합창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연은 상임지휘자 박범훈씨의 지휘에 중앙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중앙불교합창단이 공연한다.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은 찬불가 발표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돌보기 위한 자리로 본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BBS 거룩한 만남' 가족 100명에게 전액 전달된다.

입장권은 중앙불교합창단에서, 896-2341

소년가장과 나눔의 기쁨 —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이번 연말 음성공양 공연의 필두가 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회주·법정)'의 「어려운 이웃 나눔의 기쁨을…」은 지난 28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관련기사11면)

이날 공연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음악회로 법정스님의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문과 국악인 김영동, 작곡가이자 연주자 노영심, 가수 김광석씨가 출연, 맑고 향기로운 삶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불우소년 위한 공양의 밤 — 불교열린음악회

지난 29일 부산 KBS홀에서 열린 「불교열린음악회」는 정률, 심진, 덕륜스님 등 음성포교 스님으로서 널리 알려진 스님들이 뜻을 모아 한 무대에서 불우소년소녀를 위한 음성공양의 밤으로 펼쳐졌다.

재소자에 따뜻한 마음 — 불교음악예술제

11월 30일 연화비구니회(회장 법성)는 「송년 자선불교음악예술제」를 기획, 재소자를 방문해 위문공연했다.

재소자 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한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묘심스님의 독창, 박소림씨의 승무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연은 자칫 사회의 이방인으로 소외될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법우로서 인연맺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성보 1천점 "한눈에 본다"

직지사 본·말사 문화재 도록 2권 완간

전문가 동원 실측·자료수집 … 3년 걸려

조계종 8교구 본사 직지사와 말사들이 간직한 1천여점의 성보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직지사〉본사편 말사편 2권이 완간됐다.

이 도록은 직지사와 말사들의 현재 모습과 성보 문화재 그리고 사적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3년간의 작업끝에 완성된 이 책은 본 말사의 현황과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어 학계와 문화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이 도록의 발간과 관련 지난 30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 귀중한 성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가치를 드높히기 위해 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님은 "직지사의 도록 발간으로 다른 본사와 말사에서도 성보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보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간행된 직지사 본말사의 문화재도록은 국가지정 문화재뿐만아니라 각 사찰의 현재 모습을 원색 사진으로 싣고 그 실측도면을 수록함으로 사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작업 과정에서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성보 30여점을 발굴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처리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지사가 본말사의 문화재 1천여점을 모아 편찬한 〈직지사〉 본말사편 2권이 완간됐다.

이들 문화재들은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에 문화재 및 중요유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란게 직지사측의 설명이다.

〈직지사〉 본사편에는 6백여컷의 칼라 사진과 함께 각 당우와 부조물, 탱화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또 말사편에는 4개시 5개군에 소재한 59개 말사의 건축과 회화, 부조물들이 사적과 함께 기록돼 있다. 말사편에는 8백여컷의 화보가 실렸다.

본사편의 말미에는 직지사의 사적이 수록돼 있으며 배치도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말사편의 말미에 수록된 직지사 본말사 소장 주요문화재 목록에 따르면 현재 직지사 본말사에는 선산 죽장사 오층석탑등 2점의 국보와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등 보물 29점 도지정문화재 11점 도지정문화재자료 9점 민속자료 1점등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3년간에 걸쳐 준비된 도록 작업에는 석정스님과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 장충식교수(동국대)등 전문가와 사진작가 실측기사등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록의 집필을 맡은 장충식교수는 "이번 작업 과정에서 수많은 불화가 조사되었고 7축의 대형괘불을 정밀조사, 그 가치를 밝힌 것등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성보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직지사〉본말사편은 사찰 스스로가 성보문화재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 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임연태 기자〉



◇성주사지 발굴 현장.

"성주사는 백제시대 사찰"

충남대, 오합사터 발굴성과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사의 창건시기가 백제시대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성주사터를 발굴중인 충남대 박물관(관장 최근묵)이 성주사지에서 백제 오합사(烏合寺)로 추정되는 사찰터를 발굴, 23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성주사지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이 정비, 복원키로 한 것으로 보물 제 19, 20, 47호인 5층석탑, 중앙3층석탑, 서삼층 석탑 등 중요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발굴은 통일신라시대(850년께)로만 여겨왔던 성주사 창건시기를 오합사를 발굴함으로써 창건시기가 백제시대(600년께)라고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와(鬼面瓦), 석제대좌 및 고려시대의 소조불상 등 중요유물도 출토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룡사는 가야유적

향토사가 김세호씨 주장

관룡사(경남 창녕군 소재)는 신라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고대가야불교 유적이라는 점과 한국불교사에서 가야불교로서의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랫동안 창녕지역 불교문화 연구에 몰두해 온 향토사학자 김세호씨는 최근 창녕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학회지에서 「창녕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창녕지역은 불교문화재로 국보 1점, 보물 7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잔재가 산재돼 있는 곳.

이같이 한국불교사에 있어 창녕지역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문헌이나 기록의 부족으로 인해 이 지역 불교문화의 정확한 역사적 고증은 소홀히 취급되어 온 실정이었다.

김세호씨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화왕산 소재 사찰 중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관룡사유기」에 주목하면서 관룡사가 가야시대의 불교유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은하사 문화재 도난

비천상 등 조각 6점

김해시 삼방동 882 은하사(주지·대승)소장 도지정 문화재 제238호 비천상(수미단) 조각품 6점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은하사 대웅전에 소장돼 있던 이 조각품들은 불상받침대에 조각돼 있던 것으로 이 불상받침대는 지난 92년, 93년 두차례나 도난 당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 6점의 비천상마저 도난당함으로써 불상받침대의 비천상 모두를 도난당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이 사찰 해경 총무스님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아침기도 준비를 위해 대웅전에 들어서다 비천상 조각품이 도난 당한 사실을 알고 20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불심시심 〈6〉

선의 마음, 시의 생각

春山無伴獨尋幽 (춘산무반독심유) 친구 없이 봄 산 깊숙히 찾으니
挾路桃花覩杖頭 (협로도화친장두) 길 가의 복사꽃 지팡이에 스치다
一宿上雲疏雨夜 (일숙상운소우야) 부슬비 내리는 상운암의 밤
禪心詩想兩悠悠 (선심시상양유유) 선의 마음, 시 생각 아슬하구나

이 시는 조선조 중엽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대사의 시이다. 시의 제목은 '상운암에서 자다(宿上雲庵)'이다. 암자라하면 조용한 인상부터 갖는 것이 상식이다. 등행도 없다. 창 밖에는 가랑비가 내린다. 길 가에 널려 있는 꽃 잎은 지팡이 끝에서 날린다. 주변의 모든 경관이 길을 걷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저 나일 수 밖에 없고 홀로라는 단어가 어울리도록 혼자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떠 오르는 것이 시상이다. 한 편의 시를 쓰지 않고는 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시가 아니다. 그저 아름한 생각에 솟아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것이 시요, 이것이 선이다.

문자를 빌려야만이 표현이 가능한 시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과 어떻게 같은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일까. 스님도 이 시에 선심과 시상이 다 같이 아득하다 하여 그 유원한 멋을 함께 하고 있으니, 서로 처지가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면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선이나 시가 모두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선행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곧 깨닫기까지는 시에서 선의 방법을 구해 오는 것이고, 깨닫고 나서는 선이 시에서 표현 방법을 빌려 오는 셈이다. 즉, 말을 거부해야 하는 선의 오묘한 깨달음에서도 끝내 시적 축약된 언어를 빌려와야 한다.

이때 깨달음에서의 상상인 선상이나 시상의 표현에 가장 적절한 것이 시어이다. 그러므로 선이나 시는 조화롭지 않은 듯하면서도 조화롭고, 논리가 없는 듯하면서도 논리가 있고 목적이 없는 것 같으면서 목적에 들어 맞는다. 이는 심리만상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과 같다.

이종찬〈동국대교수〉

日 법륭사 백제관음당 건립

세계문화유산 등록계기 … 98년 완공

일본 법륭사에 백제관음상을 안치키 위한 백제관음당 건립 추진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법륭사가 세계 문화유산조약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백제관음당을 새로 건립해 부식되어 훼손일로에 있는 백제관음상을 소장키로 한 것.

마스다관장은 「이 백제관음당이 건립되면 백제관음상을 모시는 신(新)대보장전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옛 역사를 증명하는 법륭사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전망」이라고 말한다.

이에 법륭사내 백제관음당 건설추진 사무국측은 앞으로 4년간 모금운동을 계속해 98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 불자들로부터의 모금 또한 희망하고 있다.

바람소리의 형상화
하수경교수 개인전

하수경교수의 여섯번째 개인전이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존에서 열린다.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전시의 주제는 「바람소리」다.

하교수는 이번 개인전에서 한지에 흙, 먹, 물감등 혼합재료로 형상화한 인간의 삶을 불교적 이해의 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초 연구반 종강
차생활 교육원

한국차생활교육원(원장·강승희)은 금년도 2학기 종강식을 지난 3일 오후 3시에 가졌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기초반 제16기생과 연구반 제15기생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원은 내년도 1학기 개강식을 3월 4일 오후 3시에 갖는다. 〈문의=732-9027〉

• 성철큰스님 종정취임 법어 **山은山 물은 물의** 사자후를 청봉스님이 삼법인 선화로 표현한 불기2531년도 불미전금상 수상 작품임(동국대학교 총장상)



작품규격:가로 365×세로 543(㎜)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화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대로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돕기에 솔선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스님 법어중에서—

성철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중 山은 山 물은 물을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화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화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60,000
• 온라인 계좌
농 협:053-02-064700 (복지회 권오성)
국민은행:006-21-0567-711 (복지회 권오성)
우 체 국:010579-0052194 (복지회 권오성)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 화 : (02) 735-5293, 732-6096
FAX : (02)208-7975

방송 단신

불교 TV 개국 특집 「달마가…」 美서 제작

불교텔레비젼은 내년 3월1일 개국을 앞두고 특집다큐멘터리 「일본속의 한국불교」에 이어 특집 다큐멘터리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도 미국 현지제작 중이다.

지난 24일 출국한 btn의 김대우PD, 김원곤 카메라맨, 이수남 오디오맨은 미국 불교전래 100주년에 맞춰 미국 이민불교의 역사와 미국에서 불교가 독자적으로 대중화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 한달간의 일정으로 현지제작 되고 있다.

이 제작팀은 동양과 서양이 접점을 이루는 하와이의 최초 사찰 흥원사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주요사찰 달마사, 관음사등을 비롯, 태국, 스리랑카계 사찰을 탐방 취재한다.

또 전자불전연구소, 스즈키 젠센터, 미주한국불교방송, 흑인불자회 등 주요 기관을 방문 취재하고 루이랭카스터, 칼루파하라교수 등 미국의 주요 석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이민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본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50분용 총3부작으로 구성됐다. 제1부 '동양에서 온 전법자들' 제2부 '푸른 눈의 신심' 제3부 '발원이 싹트는 땅'의 내용으로 거대한 불교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미국불교를 직접 확인취재의 형식으로 구성, 방영된다.

남해분사도감 집중조명

K-TV 「일연과…」방영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과 남해분사도감의 관계를 집중조명하는 「일연과 남해분사도감」이 KBS TV '한국의 재발견'을 통해 오는 15일 밤 10시부터 45분간 방영된다.

이 프로의 제작을 위해 제작팀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연스님과 관련있는 인각사, 운문사 해인사등의 행적지를 취재하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일연 스님과 남해 분사도각의 유기적 관련을 조명, 일연이 팔만대장경 제작등 고려 중기의 역사를 보는데 핵심 인물임을 규명하고 남해분사도감의 터가 어디인지를 추정해 보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고 밝힌다.

KBS의 이번 프로그램은 일연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팔만대장경의 탄생지인 남해분사도감이 찾는 연관성에 따른 학자들의 관심을 새롭게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구에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

성운스님, 복지법인 인덕원 설립 추진

최근 청소년회관, 체육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특정종교에 일방적으로 위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삼천사 주지 서성운스님이 11월 4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대규모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는 수행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실천행입니다만 불교는 그동안 사회복지에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은평구 진관외동에 마련한 1천8백평 대지에는 우선 64명 수용의 대규모 보육원을 자율계획으로 오는 연말 기공식을 갖는다.

또한 진관내동에 있는 5백여평에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건립 허가가 나는대로 기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다.

스님의 종합복지에 대한 계획은 장대하다. 은평구에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아동·청소년·노인·가정·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며 불법도 포교하겠다는 것.



◇ 성운스님

노인세대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스님은 불광동에 불우노인을 위한 무료병원을 운영할 것도 밝힌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가 위탁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11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미흡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가 24개인 만큼 교구별로 종합복지관을 하나씩 운영해 사회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얼마나 흐뭇할까요? 지역 주민들이 불교적 심성속에서 산다면 자연스럽게 포교도 되고 복지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재소자 교화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성운스님은 어린이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육원 건립에도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 품안에서 뛰놀던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불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은평구 각 동별로 10~1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립해 서로 유기적 관계로 운영하고 불교유치원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남은 생을 사회복지로 회향하겠다는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이념과 취지가 수승해도 실천이 없는 종교가 인간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역설하는 성운스님은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내년 동국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귀띔한다.

〈이경숙 기자〉

종단발전 특별위 구성

태고종 중앙종회 연구·복지사업에 역점둬

한국불교태고종 제69회 정기 중앙종회(종회의장 신벽산)가 지난 29일 태고종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려 95년도 사업계획,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고 종법기초 위원회와 종단발전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했다.

종회의원 38명과 종단 각급 기관장 및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서 통과된 95년도 종단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종단의 체질개선, 총무원 임직원 정예화, 전문종무기관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종단조직정비, 종단 중장기 사업계획수립, 종승연구사업, 승려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등 종단 기본사업의 적극추진을 결의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특히 종단법 인개편과 관련 종단법인관리법 및 사찰법 제정을 위한 종법기초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었다.

이와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태고종단의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키위한 종단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종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총무원장, 종회의장, 사정원장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게 되며 내년 2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3월 중앙종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종단개혁작업을 추진하게된다.

상월원각 탄신대재 천태종 30일 구인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30일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83주년을 맞아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법요」를 봉행한다.

천태종은 이에 앞서 29일 오후 5시 탄신전야제를 갖고 봉축등 점등식등 다채로운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목동회관 운영 정상 언론 보도 잘못

서울시립목동청소년회관(관장 이광우)은 지난달 23일자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청소년회관"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목동청소년회관은 11월22일 시의회 이선희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이를 사실확인없이 기사화해 마치 목동회관이 파행 운영되는 타기관과 같이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액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문화센타, 기독교 문화센타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타와 비교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고려, 수강료를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목동청소년회관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없이 재단보조금과 프로그램 운영수익금으로 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음악회" "목정제"등 청소년 대상 행사를 무료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음도 강조했다.

동국대 동림동문 총회 회장에 성웅스님

동국대 동림동문회는 지난달 20일 동문총회를 열어 회장 성웅스님을 비롯, 차기 임원진 30여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장=성웅 △부회장=효정, 지암, 원산, 혜연, 송묵, 연담, 운월, 현관 △감사=정진, 도공, 법정 △사무총장=법경 △기획실=장적 △사무국=현도, 법성, 자음, 정우 △총무=적일 △재무=일법 △교무=현정 △섭외=진우 △봉사=법농 △포교=도정

조계종 총무원 신설부서 무슨 일 하나

교육원

이번 조계종 개혁에 있어 승가교육 분제만큼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논의된 분야도 없을 만큼 승가교육에 대한 자체 분석과 연구가 여러차례 이뤄졌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교육원'의 신설이다.

승가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의 체계적 교육이야말로 종단 발전의 초석임이 공감대로 형성된 교육행정의 전담기구인 교육원은 산하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및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 산하에 총무국 교육국 연수국을 두어 해당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행자교육원과 승가대학을 의무화시킴에 따라 출가행자는 의무적으로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 업무를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승가대학은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니)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1개소(중앙승가대학) 지방사찰에 수개소(지방승가대학)를 두는 기본의무교육기관으로 이를 이수하여야만 정식으로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교육국에서 전담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인 학림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수원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불학연구소는 선학, 율학, 교학을 연구하여 교학연구의 체계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불교문학·미술등 예술과 언론등 전문분야교육과 보육교사 양성에 필요한 특수학교 등의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맞는다. 또 종단장학생 선발 등과 법계확립을 위한 승가고시를 실시한다.

교육원장은 통도사 강주로 오랜 경륜을 자랑하는 원산스님이 맡고있다.

불학연구소 설치, 법계고시 실시

문화사회부

신설 문화사회부 산하 문화국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화부'의 단독 신설보다는 미흡하지만 문화전담기구 설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문화국의 주요사업중 하나는 불교문화재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정확한 실태조사이다. 각종 불교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문화 단체 및 관계자 관리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국은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비롯 유형·무형 문화와 문화교육과 자료실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문화재전문가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 사안에 따른 각종 자문을 구하여 현실 업무에 활용시킨다. 또한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문화재 등록대장을 완비하고 이를 전산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문화국은 불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추진한다. 문화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후원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교육과는 문화관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승 재가를 막론한 관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신년예산을 보면 문화비 예산으로 6천7백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중 성보문화재조사비 및 관리비로 4천7백만원을 책정했다. 자꾸만 훼손되어지고 유실돼가는 성보문화재를 종단에서 적극 관리해 보자는 뜻으로 문화비 예산의 70%를 책정한 것. 앞으로 문화국은 문화재에 대한 교육에 더욱 역점을 두고, 불교문화의 대중화, 국제화 등에 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국에 대한 교계의 주문이다.

〈숙〉

문화·예술 포교의 견인차 역할

btn 불교 기획 사업팀 창설

영상소프트·이벤트에 주력

종합영상매체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응)이 기획사업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불교영상 프로덕션의 모체가 될 이 기획사업팀은 12월 10일경 창설되고, btn 경영관리국과는 별도의 행정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팀은 경력 카메라맨 5명의 촬영팀에 의해 영상소프트 및 이벤트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방송용으로 제작 중인 「한국명찰순례」에 내용을 더 보강해 만들 사찰홍보용 비디오, 법회기록 비디오, 불교계 실업인들의 기업홍보 CF물 등의 영상소프트를 주문제작해 수익사업에 힘쓰게 된다.

불교TV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획사업팀 창설계획을 밝히고, 불교TV의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세확장을 이뤄 불교종합영상사로의 성장을 기대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교TV는 불자주식공모 마감에 대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지역의 주식청약이 전체지역의 91.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타지역에서의 낮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불교TV는 이와같은 결과로 불자 주식공모 홍보에 많은 문제점를 안고 있었음을 자체 진단하고, 문제로 지적된 홍보상의 문제들을 보완해 3차 주식공모에서는 더욱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심의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통신

세계 유산 4백곳 컴퓨터이용 복원

앙코르와트 등 세계적 문화유산 4백여곳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원형대로 보존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문화국은 최근 각국의 협력을 얻어 「문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실」을 개설했다. 이 개발실은 최첨단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세계 유산의 복원과 우주 고고학을 전담하는 기구.

이 개발실은 3차원 입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앙코르와트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복원을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복원할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한 4백11곳의 문화및 자연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환경체택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이 작업의 1차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석굴암, 종묘, 팔만대장경판고 등 3곳을 세계문화유산 지정대상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神道」어원 한국이나 중국

오오사카 여대학장 주장

上田正昭 오오사카여자대학 학장이 신도의 어원이 중국이나 한국의 고전에서 유래된 것이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민간신앙인 「신도」는 일본서기에 나오는데 일본 독자의 용어가 아니란 점을 밝힌 것이다.

신도란 용어의 유래는 불교의 육도사상을 전거로 한다는 설과 도교의 전적에 의거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실제 주역에선 「자연의 이법」을 의미하는 「신도」란 말의 용례가 있고, 〈진서(晉書)〉에서는 도가의 도를 「신도」라 지칭했다. 〈후한서〉 등에서는 각종의 주술이나 방술, 선술을 의미하는 용례가 있다.

신사(神社)란 말도 〈육자〉에 보이고, 신궁(神宮)이란 말도 〈시경〉에 보인다.

한국의 〈삼국사기〉의 제사지(祭祀志)에는 지증왕대(500-513)에 나을(奈乙)에 「신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본기에도 소지왕 9년(487) 무렵에 「신궁을 나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계간 「일본불교」 창간

일본 서적 전문 출판업체인 법장관(法藏館)은 계간(일본불교)을 11월 22일 창간했다. 이 잡지는 일본불교가 학문적으로만 연구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창간됐다. A5 판형. 정가 2천4백엔.



양념의 옛말은
'약념(藥念)' 입니다.
약으로 알고 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치 속의 양념들은
하나 같이 藥 중의 藥입니다.

약이 되는 우리 음식이야기/김치②

김치의 비밀은 양념 속에

김치 특유의 맛과 약리작용, 그 비밀은 양념과 발효에 있습니다.

김장 때부터 먹기 시작한 마늘은 강력한 제독·항암 작용을 하며 강장제나 정혈제로서의 효능도 탁월합니다. 마늘 속의 '알린'이라는 성분은 마늘 고유의 냄새를 나게 하는 유황화합물로서, 김치의 발효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으로 알리신이 됩니다. 이는 강력한 제독·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성분을 추출한 항암약품이 개발돼 있습니다.

스코르디닌은 강장효과를 발휘하는데, 쥐 실험을 한 결과, 그것을 주사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4배나 활동력이 더 강해질 정도입니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인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과 그 밖의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지방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고춧가루로 양념하여 먹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생강은 변질되는 물질을 재생하는 효능이 있어 예부터 약으로 써왔으며 파 또한 중금속을 제거할 정도로 강한 해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양념들이 무나 배추 속에 침투하여 그 속의 악성과 결합되어 훌륭한 음식이자 약이 됩니다.

이처럼 채소와 양념이 한데 어우러져 발효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금입니다. 채소에 간을 해놓으면 탈수작용, 살균작용, 항균작용, 제독작용 등 소금의 약리작용이 일어납니다. 채소 속의 수분을 빼내 양념성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고, 채소의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배출시키며,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의 번식은 억제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발육은 촉진시켜 줍니다.

김치를 약이 되게 하는 열쇠는 소금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질 좋은 소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더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인산 김일훈(1909~1992) 선생이 개발한 신비의 소금 인산죽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서해안 굵은 소금을 왕대나무통 속에 넣고 지리산 기슭 황토로 봉한 다음 송진불로 굽기를 아홉 번, 마지막 아홉 번째 가서는 1천도 이상 센 불에 녹여낸 약소금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구운 인산죽염.
세 번 구운 김장용 인산죽염.

150년을 잇는 '身土不二 건강'의 맥

통신판매/인산가 736-3171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인도 네팔 11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1월 27일 동참금 : 165만원
● 일 정 : 서울-델리(1박)-럭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기르, 나란다-파트나(1박)-바이샬리, 쿠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두(1박)-싱가폴 경유-서울
● 특 전 :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캔디 불치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6일, 1월 20일 동참금 : 10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른나루와, 시기리야-하바라나(1박)-엡불라, 아루비하르-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27일, 2월 10일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2월 16일, 1월 13일, 2월 3일 동참금 : 68만원
● 일 정 : 서울-타이페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페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2월 11일, 1월 22일, 2월 12일 동참금 : 85만원
● 일 정 :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544-1533

■ 여행조건
· 특급 또는 1급 호텔(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 최소 출발 인원 : 10명

생활경구를 가훈으로

법구경 · 보왕삼매론등 인기…삶의 지혜 일깨워

자비의 전화 주최, 가훈 써주기 행사 성황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생활용품이 늘고있는 가운데 경구(경전 글귀)보급을 위한 행사가 열려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까지 호응을 얻고있다.

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지난 달 27일 본사 지하 녹수청산에서 '한가정 불자 한점 모시기 및 가훈 써주기를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 전화 행사에는 능허스님을 비롯 서예가들이 현장에서 9백여명의 불자들에게 경구를 써주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성훈스님(작고)이 3년 묵언으로 쓴 '佛'과 반야심경, 한산습득, 육바라밀 등의 경구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생활경구가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표구자는 물론 달력이나 시계 등의 생활용품에서도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불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경구는 '佛' '보왕삼매론' '반야심경'을 비롯 '법구경'과 조사어록 등에 나오는 글귀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마음을 바로잡거나 좌우명으로 삼을 구절들이다. 특히 일부 불자들은 집안에 불상을 대신하여 경구를 모시고 예경을 하기도 한다.

생활경구의 보급은 대부분 사찰이나 신행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대전 태고사(주지 도천)는 '법구경'을 매달 1만장의 화선지에 인쇄해 보급하고 있다. 사찰 참배객은 물론 인근의 사찰신도들에게 경구를 보급하고 있는 태고사의 법공양은 1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우리출판사(대표 김동금)에는 매년 15개의 사찰과 단체가 경구인쇄를 의뢰하고 있다. 이곳에서 인쇄되는 경구는 대부분 '보왕삼매론'으로 1년에 20여 만장이 제작되고 있다.

생활경구는 공공시설에서도 인기가 높다.

서울 마포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소유인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액자에 경구가 매주 하나씩 걸린다. 대부분 '법구경'과 조사어록에서 뽑은 글귀들이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회사원 유재훈씨는 "30초 내지 1분가량의 엘리베이터 이용시간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색해하다 액자를 발견했다"며 "불교인은 아니지만 모두가 가슴에 새겨둘 말이어서 항상 되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화장실의 '입측진인' 식탁위의 '공양게'등 일상생활에 맞는 부처님 말씀이 세련되게 제작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불교용품중 책갈피나 어린이용품 등에도 부처님말씀이 새겨져 상품가치를 높이는 한편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자비의 전화' 주최 가훈써주기 행사에서 능허스님이 불자들에게 가훈을 써주고 있다.



황선하 김호길 조순자 허재중

문학 황선하 · 봉사 허재중씨

마 · 창불교연,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불교유일의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이 11월 30일 마산 사보이 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거행됐다.

마산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이날 스님과 지역 기관장,언론인 및 불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1부 시상식에서 문학상 황선하씨(63. 경남여상 교사),언론상 김호길씨(56. 경남신문 편집부국장),예술상 조순자씨(50. 경남국악교육연구회 회장),봉사상 허재중씨(73. 남마산 라이온스클럽직전회장), 문화단체상에 마산민속문화보존회(회장 구상훈)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 가운데 문학상 부문의 황선하씨는 향토원로시인으로서 55년 〈현대문학〉지에 시 〈벽〉으로 등단한 이래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교직생활 30여년동안 작문지도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상부문의 김호길씨는 의령 경찰 총기난동사건 당시 활영한 사진이 전세계 언론에 인용 보도되는 등 개가를 올렸으며 경봉스님 다비식 장면 등이 한국보도사진연감에 수록되는 등 생생한 역사현장을 담은 사진을 많이 남겼다.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인을 선정한 예술상 부문의 조순자씨는 35년간 우리가락에 둘러 살아오면서 국악에 대한 끈질긴 집념과 열정을 쏟아왔다.

봉사부문의 허재중씨는 정법사 시민법종, 문수암 사리탑,내원사 요사채건립등 각종 불사와 결핵병원 후원 등 종교인으로서 무주상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문화단체상부문의 마산 민속문화보존회는 지난 81년 민속예술의 발굴 재현과 보존 전승을 목적으로 창단되어 민족혼의 맥을 잇는데 힘써오고 있으며 마산 농청놀이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수상자들은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한편 시민불교문화상은 지난 91년 마산 창원지역 불자들이 지역불교와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이 많은 이를 선정, 해마다 수상을 해오고 있다. 이상은 문학상, 봉사상, 예술상, 언론상, 문화단체상으로 나눠 해당분야 10년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수여해 왔는데 특히 불교계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상이지만 수상대상자는 종교와 무관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재가불자 종회서 발언가능"

월주 총무원장 신도대표들과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9일 재가불자들과의 모임에서 "오랜 연륜을 가진 전국신도회의 법통을 살리며 한국재가불자연합과 연합해 새로운 재가모임으로 탈바꿈해 개혁작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처장 안동일)이 주최한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취임 축하모임」에 참석한 월주스님은 재가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신도의 종회 참여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선 불가능하고 향후 결의권은 없더라도 발언권 확보차원에서 종회 참여는 가능할 것"이라며 "재가포교사를 많이 배출해 교화부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포교일선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을 인사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인사고과에 높게 평가하겠다"고 쾌히 응낙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재가자는 다음과 같다.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오형근(동국대교수) 한상범(〃) 이문육(전 감사관) 안동일(변호사) 이재훈(〃) 김영은(〃) 민병준(회계사) 김경복(달마회장) 이순규(의사) 권지홍(신도회 기획실장) 장혁(대불련 회장) 이상번(대불청 회장) 김재일(동산반야회장) 등.

호계원장에 고산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 · BBS특별위도 구성

조계종 제114회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25일 속개된 회의에서 호계원장에 고산스님(쌍계사주지)을 선출하고 재심호계위원에 고산 도원 보성 설조 종진 혜남 덕민 법광 진철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정호 자광 향과 도영 혜총 화봉스님을 임명했다. 또 소청심사위원으로는 종하 지하 중원 지선 혜담 법보 부동스님을 임명했다.

한편 종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및 불교방송·언론조정특별위원회, 불교자주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각 위원을 선임했다.

△선학원대책위원= 혜창 원우 지명 법등 법성 지홍 청화 정우 송산 현진 석호 영배 효림 인행 화범

△불교방송·언론조정특위= 명진 태원 각현 중원 보선 덕상 진관 여연 지만 대원 부동 세영 지훈

사서실장 평상스님 사업부장 설송스님

조계종 제 28대 집행부의 소임자가 추가 확정됐다.

사서실장에 평상(전 호법부장) 사업부장에 설송(희방사주지) 교육부장 향적, 포교부장에 원혜스님이 임명됐다. 집행부 각 국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성해 △감사국장=법진 △재무국장=종삼 △문화국장=정인 △사회국장=법광 △사업국장=정만 △호법국장=정념 △조사국장=홍관 △상임감찰=월우 △사서실 차장=진오

새 총무원장 취임식 9일 조계사 대웅전

월주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의 취임법회가 오는 9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교계및 일반 정·재·사회계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초청될 법회후 오후 6시부터는 타워호텔 젤코바홀에서 취임축하 리셉션이 거행될 예정이다.

안성불광원 개원 광덕스님 주석

경기도 안성군 불광원(법주 광덕)은 지난달 27일 목불 점안식을 겸한 개원식을 봉행했다.

불광법회회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개원식에서 광덕스님은 "반야바라밀을 수지, 선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항상 정진하자"고 말했다.

광덕스님은 앞으로 불광원에서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승려탄압 중지촉구

WFB · WFBY 대회 성료

제19차 WFB·WFBY 대회가 태국 방콕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밤 막을 내렸다.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 네팔등 국가로부터 불교·승려들이 탄압받는 국가에 공식 성명서를 보내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FB가 공식적으로 인권문제를 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37개국 132개 지부 가운데 27개국 72개 지부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측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불참과 일본 조총련계 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송년 경로잔치

신월청소년 독서실

구립 신월청소년 독서실(관장 배정길)은 지난달 29일 독서실 경로회당에서 「94송년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노인 4백여명과 관계인사 1백여명등 모두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공양후에 남인수기념사업부 자원봉사대원 20여명이 여흥을 베풀기도 했다.

또 (사) 법사동우회에서는 쌀 10가마를 보내왔다.

군법당 원홍사 낙성

군불자 새로운 수행도량

강원도 고성군 구성리의 육군 제22사단 군법당 원홍사(주지법사 이정우)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도각스님(건봉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낙성식을 가졌다.

한달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여평의 공간을 마련한 원홍사는 이 지역 군불자의 새로운 수행도량으로 자리잡게 됐다.

동국대 신학풍운동 펼친다

사제대화 정례화 … 인성교육 기대

학생들의 교수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학교(총장 민병천)가 대학의 인성교육강화와 면학풍토조성을 위한 '신학풍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동국대는 지난달 28일 대학본관앞에서 교수 직원 및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풍운동본부' 현판식을 갖고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학풍운동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일어나는 비교육적 학원풍토는 인성교육의 부족과 면학의식의 결여에서 생긴 산물"이라 규정하고 "향후 교수와 사제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명랑한 학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선과 인간' '명상과 자아' '논어와 예기' 등 교양과목을 95학년도부터 개설토록 했다. 여름방학기간중에는 건학이념구현 일환으로 3박4일의 사찰수련회를 마련, 희망자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동국대는 부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제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도록 교수 학생간 대화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신학풍운동본부 현판식

'원화와~' 통일축제

청소년 4백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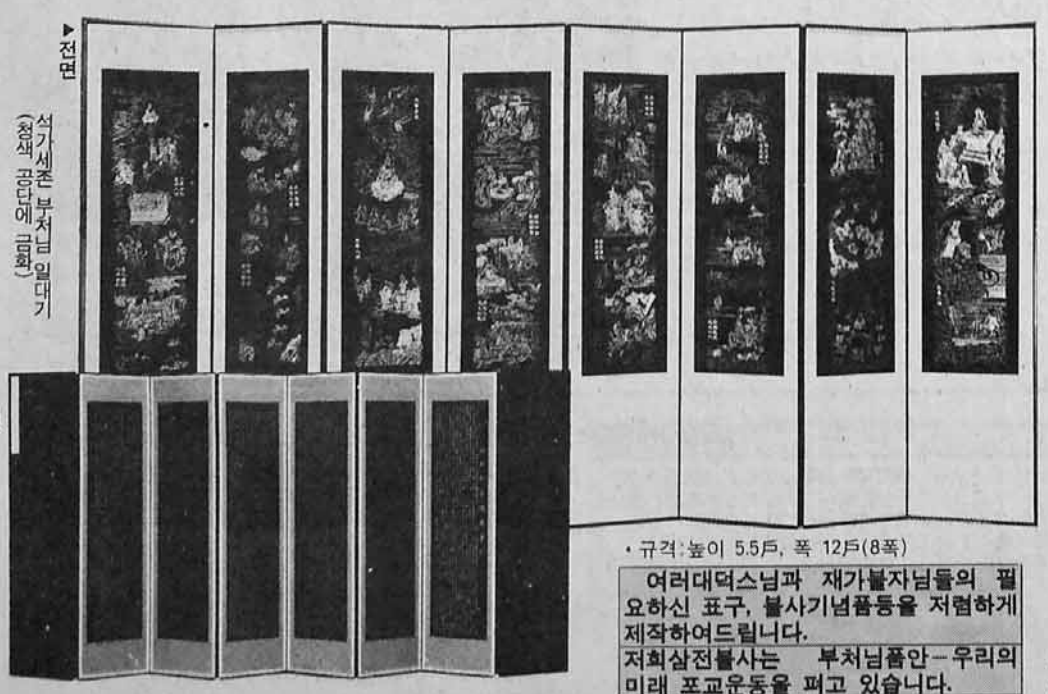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한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통일 대축제가 지난달 26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원화랑단 단장 김선일스님(교화연합 인천지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해군 군악대의 축하연주를 비롯 원화랑 대표의 축하무용과 중창이 무대를 메워 이날 축제에 참가한 4백50여 청소년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높이 5.5尺, 폭 12尺(8폭)

여러대덕스님과 재가불자님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삼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금강경

• 작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畫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상-석존께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람강생상-룸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사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성을 넘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시다.
5. 설산수도상-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하항마상-마왕파순의 도전을 받고 굴복을 받으시다.
7. 녹원전법상-5비구의 귀의와 녹야원 설법하시다.
8. 쌍림열반상-열반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포교를 펴고자 본성품을 신청하시는 분께 백자반아달마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아 달마도자기〉

특별보급가격:W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W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황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때 길을 일러 주십니다.



재가불자 성도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족자규격: 1520×520 (㎜)
• 포교가격: W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 문의처 : (02)439-6128~9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이런 후 건강칼럼 <8>

마 음 병을 잘 치료하는 법

병원을 즐겁게 찾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좀 아프더라도 며칠 지나보고 더 아파지면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음이 괴로운 병은 병원을 찾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늦게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음이란 약으로 고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니 그게 두려워서 병원을 더욱 멀리하고 싶어진다. 병이란 나인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따른다면 누가 병원을 찾고 싶겠는가. 하지만 병은 병원에서 제일(?) 잘 고친다. 정신과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대개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 의해 권유받거나 때로는 강제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끌려왔다는 불만 생각이나 피해적인 생각 때문에 병원에 와서도 그런 감정을 내기는데 며칠씩 걸리곤 한다.어떤 병도 마찬가지이지만 아픈 자신이 내 병을 고쳐보겠다는 강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병의 예후가 훨씬 좋다는 것은 여러 연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경전에 환자가 지켜야 할 다섯가지 지침을 적은 게 있다. 첫째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적고 있다. 곧고루 골바르게 먹으라는 뜻이다. 둘째로는 제때에 먹으라는 지시다. 폭식을 하거나 때를 거르거나 하는 것은 해롭다는 뜻이다. 셋째로는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도 적고 있다. 약은 환자에겐 꼭 필요한 도움이다. 넷째 화를 내지말라고 적고 있다. 화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화 뿐만 아니라 지나친 희노애락이 모두 신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화는 병

고쳐 보겠다는 강한의지 가져야 잘 나아

을 만들거나 악화시킨다. 다섯째로는 치료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른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종처럼 무엇이나 시키는데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치료적인 권유를 잘 따르라는 뜻이다.

길을 모르면 교통순경에게 물어보면 제일 쉽게 길을 찾는다. 글을 모르면 학교 선생님에게 배우면 제일 빨리 글을 익힐 수가 있다. 같은 이치로 병은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증일아함경에 이른 위의 다섯가지를 명심하고 치료에 임한다면 그는 이미 반은 치료된 사람이다.

계절 없는 세상 ②〈끝〉

주부신행담



"잘난 척 하기는 쉬워도 못나긴 어려웠습니다. 정말 무심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생각을 내서 숙이는 것은 숙이는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속 한 생각이 계절 … 극락 지옥도 오늘에 있어"

스님의 "그 모습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실로 눈물겹도록 안타까와 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넘고 싶은 생각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주인공, 번뇌망상에 매인 노예를 풀어 주십시오. 마음을 쓰는데도 한 발작도 걷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열심히 선원에 다녔고, 남치면 진화하는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데 꾸준히 노력한 것입니다. 정말 제 모습 바꾸기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원을 내집처럼 알고 다니던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었고, 큰스님께서는 그 따란 중생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만 기슴에 맺인 응혈을 녹이듯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모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고히 믿어야 어느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마저 세울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 자신을 너무 뻣뻣하게 세우느라 힘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잘나야 머리카락이고, 못나 봤자 발바닥인 것을 잘난척 하기는 쉬워도 못나긴 어려웠습니다. 똑똑해지려고 이 공부하려다가 바보되는 공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늘 저에게 "뻣뻣하던 놈도 푹 수그러진다. 버 이삭이 익으면 푹 숙어지지 않더냐."

하시며 다독거려 주시었습니다. 정말 무심으로 숙여야 하는데, 생각을 내서 숙이는 것은 숙이는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물려야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것과 같이 너와 내가 동맥과 정맥이 같이 돌아서 그래서 한마음인 것을 … , 마음의 눈이 자명등을 밝힌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친지들은 저의 모습이 편안해지고, 눈빛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기가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광소에 말이 없는 남편이라 보채듯 물었습니다.

"선원에서는 사람도 보림을 하는 모양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저의 변화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도록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한마음 선원인지 뭔지 매일 살러가는 것이나고, 아예 중하고 같이 살라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 ,

그 후 남편도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승 겸 장모님으로 모시면서 말입니다. 정말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서야 남편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실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절없는 세상을 살아갑시다. 내 마음속 한 생각이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오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이 되어 보물을 찾아 보탑되게 살아 갑시다.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신 큰스님, 총무스님, 선원의 모든 스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만큼 갚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김영숙(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Early that same morning, the Blessed One dressed, took bowl and robe and entered Rājagaha seeking alms. He saw Sigāla at his rite of worship and spoke to him thus:

부처님께서 그날 이른 아침 가사를 입고 발우를 받으신 후 탁발하러 라자가하에 가셨다. 부처님께서는 시갈라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Why, young householder, do you, rising early and leaving Rājagaha, with your hair and raiment wet, worship the several quarters of earth and the sky?'

젊은 장자여, 그대는 왜 일찍 일어나 성을 떠나와서 머리와 옷이 젖은 채 땅과 하늘의 여러 방위에 예배하는가?

'Sir, my father, when he was on his death-bed, said to me: "Dear son, you should worship the quarters of earth and sky." So I, sir, honoring my father's word,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②

reverencing, revering, holding it sacred, rise early and, leaving Rajagaha, worship on this way.'

부처님, 저의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땅과 하늘의 여러 방위에 예배해야만 한다." 그래서, 부처님,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공경하고 숭배하여 신성하게 지키고자 일찍 일어나 성을 떠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나이다.

'But in the discipline of the Ārya(Noble One), young householder, the six quarters should not be worshipped in this way.'

그러나 성인의 수행법에 따르면 젊은 장자여, 육방에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되느니라.

*alms 자선품, 희사, 의연금
*reverence 공경(외경, 숭배)하다.
*revere 외경하다, 우러러 공경하다.
*Arya: 산스크리트어로 성인, 귀한 신분의 사람을 존경해 신성한 뜻의 형용사로도 쓰인다.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100 전통 100년, 도전 100년 1896-1996

환경관리 국내 1위
두산그룹
'94 환경관리 모범업체 최다선정

두산그룹은
모범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강토사랑, 지구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4「환경관리모범업체」로 최다 선정(16개 사업장)된 두산그룹이 이 나라 제일의 환경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두산은 예방위주의 철저한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MS)〉을 통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망라하는 환경사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토사랑, 지구사랑 — 두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현황
두산상사 금산공장 동양맥주 서울공장, 이천공장, 광주공장, 구미공장, 경산공장 두산음료 서울공장 두산기계 본점공장 두산유리 군포공장, 영남공장 두산전자 증평공장 종합식품 이천공장, 부천공장 두산제관 광주공장 오비씨그램 이천공장 백화 군산공장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1社 1山 1河川 지키기운동 · 종가집 철새보호운동 · 나무 비료주기운동 · 환경책자 배포운동등 斗山의 환경보호 운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斗山